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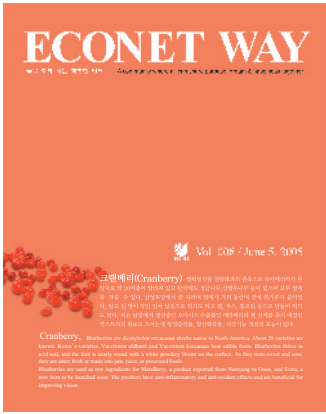
Vol. 008 / June 5, 2005



크랜베리(Cranberry) 진달래과(Ericaceae)의 활엽관목으로, 수세기 동안 민간 치료요법과 요리에 애용되었다. 최근 많은 연구기관들의 비뇨기 건강, 궤양, 심장병, 차주질환 예방 및 산화방지 효능 등의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남양알로에의 신제품으로 출시된 메타블럭과 ECONET이 탄생시킨 AgelessXtra와 Metaberry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Cranberry,

As a broad-leaved shrub in the family Ericaceae, cranberry has been popularly used both as a traditional remedy and in cooking for centuries. A number of research institutions have recently reported scientific research indicating this plant's efficacy in treating urinary disease, ulcers and heart disease and in promoting dental health and anti-oxidation, which has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Cranberries are also used as an ingredient in Meta Block, a new product launched by Namyang Aloe, and AgelessXtra and Metaberry, creations of ECONET



에코넷웨이(ECONET WAY) 6월호
발행인 이병훈
발행처 (주)남양
편집기획 (주)남양 에코넷 기업본부
편집 오경아
편집·디자인 Intercube Design
인쇄 정광인쇄(주)

ECONET WAY June issue
Publisher : Bill Lee
Published by Namyang Company
Editing and planning by
ECONET Corporate & Shared Service Center, Namyang Company
Editor : Kyeongah Oh
Editing & design by Intercube Design
Printed by Jeonggwang Printing Co., Ltd

술 담배를 즐기는 당신에겐 ... 토마토

토마토의 대표 성분은 단연 최근에 밝혀진 리코펜이다.
리코펜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음주 다음날 기분이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또한 간장에 주둔하면서 알코올이 발생시키는 활성산소가 그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토벌작전을 펼친다. 활성산소는 모든 암의 발생과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리코펜이 활성산소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암의 위협으로부터 당신을 상당 부분 보호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For those who enjoy drinking and smoking tomatoes!

It was recently discovered that tomatoes are a good source of lycopene.
By restricting the activity of acetaldehydes, which are produced in the process of alcohol decomposition, lycopene can help prevent hangovers the morning after drinking.
Also, since it is deposited in the liver and intestines, lycopene helps defend against free radicals, which are produced by alcohol. Free radicals are directly and indirectly associated with the generation and proliferation of cancer cells. Lycopene's effect on free radicals suggests that lycopene may protect you from cancer to some degree.

ECONET WAY

공동 힘겨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Contents

Company (ECONET 리포트)

- 02 > 남양알로에 신제품 “메타블럭”
- 06 > 천연물 보고 크랜베리
- 10 > “꿈꾸는 정원에는 어떤 꿈들이 자라고 있을까”

People

- 14 > 명사칼럼 내가 본 남양알로에 (서울대학교 김기석 교수님)
- 18 > 부서별 소개 미국 오아시스 세일즈팀(사업개발팀)
- 22 > 알로콧 세계 최대의 알로에 생산기지 곤잘레스!
- 24 > 미국유니젠 정미정 거짓말 절대 아닙니다!
- 26 > 칭찬 릴레이 세번째 주인공 (유니젠 영업팀 신 흥 대리님)
- 30 > 미국현지법인 첫번째 주인공 (오아시스 서비스 매니저 마사존슨)

Culture

- 34 > ECONET 기업문화 알리기 ECONET Reception Culture Code
- 38 > 문화탐방 한국의 발효식품 “김치”
- 42 > 풍물기행 세계를 가다 한국의 에코넷센터에서 꿈과 행복을 느끼며...

Info

- 44 > ECONET Headline News 1. (주)남양알로에 에코넷센터 준공식
- 48 > ECONET Headline News 2 Unigen USA의 유니베스틴 - 미국 뉴트라콘상 수상
- 52 > ECONET News Network • ECONET 자회사 소식
• ECONETIAN 신입사원 소개 • ECONETIAN 경조사 안내 • ECONETIAN 생일자 소개
- 66 > ECONETIAN 6월 사진 콘테스트
- 68 > 8월호 ECONET 사진 공모 빅 이벤트 안내
- 70 > 6월호 퀴즈 및 4월호 퀴즈 & 사진 컨테스트 당첨자 안내

Company (ECONET Report)

- 04 > Namyang Aloe's New Product “Meta Block”
- 08 > Natural Product Update Cranberry
- 12 > “What dreams do we grow in the Dreaming Garden?”

People

- 16 > Namyang Aloe in My View Prof. Kiseok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 > All About Our Team Sales Team (Business Development Team), Oasis
- 23 > Aloecorp The World's Largest Aloe Production Base - Gonzales, Mexico!
- 25 > Unigen USA Mijeong Jeong I am not a Liar!
- 28 > A Relay of Praises The Third Runner (Heung Shin, Assistant Manager at Unigen Korea)
- 32 > The First Runner of the US Subsidiaries Martha Johnson, Manager of Associate Services, Oasis

Culture

- 36 > ECONET Corporate Culture ECONET Reception Culture Code
- 40 > Cultural Travelogue Kimchi, the Traditional Korean Fermented Food
- 43 > Around the World Dreams and Happiness at ECONET Center in Seoul, Korea

Info

- 46 > ECONET Headline News - 1 Completion Ceremony for Namyang Aloe's ECONET Center
- 50 > ECONET Headline News - 2 Unigen USA Univestin Targets Inflammation Pathways for Joint Health
- 52 > ECONET News Network • ECONET Subsidiary News • ECONETIAN New Hires
• ECONETIAN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 ECONETIAN Birthdays
- 66 > ECONETIAN June Photo Contest
- 69 > An Upcoming BIG Event for the August Photo Contest
- 70 > A Quiz for June and the Winners of the April Quiz and Photo Contest



체지방 관리 전문 신제품 메타블럭

+ 메타블럭의 탄생

요새는 매 끼니때마다 조금만 먹어야지..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다짐은 항상 ‘다음부터’,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로 미뤄지기 십상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비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먹으면 안되는데...’, ‘이제부터 몸 관리를 해야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작심삼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비만인 사람의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비만인들이 많아지는 만큼 현대 질병이 생기는 사람의 수도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현대인들의 생활습관병과 비만과의 상관관계가 긴밀하게 있음이 밝혀지고,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언론 매체들이 주의를 주고 있음에도 가정과 정부의 의료비 부담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비만에 대한 증가와 그에 따른 질병에 따른 위험의 노출에 한때 다이어트, 즉 ‘살을 빼자’는 붐이 불기도 했었다. 단순히 살을 빼는 방법은 요요 현상이나 영양실조, 근육의 감소로 체력의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옳지 않은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성인병 예방과 건강한 아름다움을 드려요~

비만 탈출을 위한 옳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비만이 무엇인지 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흔히 비만이라고 하면 체중과다를 많이 생각하는데, 자신의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미스터 코리아들을 보고 우리는 비만이라고 하지 않는다. 체중과다인 비만이 많은 편이지만 표준체중에서도 비만을 찾을 수 있다. 표준체중인 사람의 체지방이 표준보다 과다하면 그 사람을 비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올바른 비만의 정의는 우리 몸에 체지방이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쌓여 있는 것이다. 사람의 인체에는 ‘체지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체의 장기들이 각기의 자리에 위치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인체의 필수요소가 아니라 인체의 해가 된다.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체지방이 과도해 지면서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비만은 살을 빼는 것보다 체지방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메타블럭은 이렇습니다.

알로에 전문기업이자 천연물 시장 최고를 자랑하는 남양알로에에서 또 하나의 희소식을 인류에게 알렸다.

그것은 바로 신제품 메타블럭의 탄생이다.

비만의 원인이 단지 몸무게가 아니라 체지방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무조건 몸무게를 빼주는데에 급급한 제품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품이 바로 메타블럭이다. 즉, 메타블럭은 체지방의 조절로 비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해주는 제품이다.

메타블럭의 핵심 기능성분은 바로 식이섬유이다.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 수용성과 그렇지 않은 불용성으로 나뉘어 지는데, 메타블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들어있다는 점이다. 함께 섭취할 경우 수용성 식이섬유에 의해 형성된 겔이 불용성 식이섬유와 지방과의 결합체를 감싸주면서 더욱 안정화되기 때문에 지방흡수 저하효과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효과를 위해 수용성과 불용성의 섞인 비율도 가장 효과적으로 고려되어 있다. 메타블럭에 함유된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는 지방흡수를 저하시키고, 포만감을 주어 섭취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알로에는 식이섬유로 첨가되어 있는데, 장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의 기능을 극대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식이섬유와 함께 함유된 기능 성분들(가르시니아 캄보지아, L-카르니틴, 베리류등) 역시 체지방 조절을 돕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남양알로에에서는 또 하나의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번 자연의 혜택은 특히 체지방이 과다하게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 탄생했다. 비만으로 이런 저런 방법을 모두 동원해 보았다가 자포자기 한 사람들, 비만이 될 조짐이 보이는 사람들, 뱃살이 많이 나온 (체지방의 과다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사람들, 너무 많이 먹으면서 운동은 잘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체지방 관리를 도와줄 전문 제품인 메타블럭을 권해 보는건 어떨까?

+ 메타블럭 어땀어요?

“굶거나 하지 않고 먹을 것 다 먹어가며 먹으니 참 좋아요”

“살이 3kg이나 빠졌어요. 물론 그냥 살이 아니라 체지방이겠지만요.”

“너무 맛있어서 자꾸 먹게 되요”

“먹는 양이 줄었어요.”

“운동을 하는 도중에 먹었는데 6kg이나 빠졌어요.”

“몸이 가뿐해지는 느낌이에요. “

“예전에 비해 아랫배가 들어가서 좋아요~

메타블럭 먹는 방법

식사 30분 전 2정씩 하루 3회
충분한 물과 함께 씹어서 섭취합니다.
(물은 하루에 1.5리터 정도)



Meta Block

A New Product for Controlling Body Fat!

How to Use Meta Block

Chew two tablets 30 minutes before breakfast, lunch and dinner
Take tablets with an adequate amount of water. (Drink about 1.5 liters of water per day)



+ The Creation of Meta Block

These days, many people pledge to eat smaller portions at each meal. However, these pledges are often put off until “next time,” “tomorrow” or “next week.” As obesity emerges as a serious problem in the general population, many people think “I shouldn’t eat so much,” “I need to take better care of myself” and so on. However, these resolutions are usually short-lived. The number of obese people is increasing each year, and accordingly, the number of people suffering from modern diseases is on the rise. A number of studies have revealed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obesity and diseases attributable to modern lifestyles. The media is spreading precautionary messages about the negative impact of excess weight on health. Nevertheless, the related medical expenses borne by individuals and the government are growing day by day.

Then, what is the proper way to overcome obesity? In order to find an answer to this question, we need to rethink what obesity is really about. We usually think obesity means being overweight. However, we don’t view bodybuilders who are heavy for their height as being obese. Those who are obese are often overweight, but some may be obese even though their weight is within a normal range. When a person’s body fat exceeds a standard range, although his or her weight may be normal, he or she may be said to be obese. In other words, the correct definition of obesity is excessive accumulation of fat in our bodies. In the human body, there is a substance called “body fat,” which is essential for the proper support of our bodily organs. However, any excess body fat can be harmful to the human body rather than being

+ What is Meta Block?

Namyang Aloe, an aloe specialist and a leading company in the natural product market, has more wonderful news for mankind: the creation of a new product called Meta Block.

Given that the cause of obesity is not weight alone, but body fat, Meta Block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other products that only focus solely on reducing weight. Meta Block addresses the fundamental cause of obesity by controlling body fat.

The key active ingredient in Meta Block is dietary fiber. Dietary fiber can be divided into soluble fiber and insoluble fiber. One of features of Meta Block is that it has both soluble and insoluble dietary fiber. When consumed together, a gel created by the soluble dietary fiber entraps the compounds of insoluble dietary fiber and fatty substances, which makes them more stable and decreases fat absorption. To maximize this effect, Meta Block contains an optimal ratio of soluble and insoluble dietary fiber. The dietary fiber found in Meta Block decreases the absorption of fatty substances and reduces their consumption by making your stomach feel more full. Aloe is added as a dietary fiber, since it maximizes the functions of soluble and insoluble dietary fiber and also regulates bowel movements.

In addition to dietary fiber, other functional ingredients contained in Meta Block - garcinia cambogia, L-carnitine, berries - also aid in controlling body fat.

Namyang Aloe is ready to bring more of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This gift of nature has been created for those with an excess of fat in their bodies. Those who have resorted to various means for overcoming obesity only in vain, those showing signs of obesity, those with large bellies (a typical indication of excessive body fat), those who eat too much but hardly work out - how about recommending Meta Block, a product specially designed to control body fat, to these people?

+ How is Meta Block?

“It’s great that I don’t have to starve myself!”
“I lost three kilograms; not just weight but body fat!”
“It tastes so good, I want to take more.”
“I eat less these days.”
“I’ve been taking Meta Block in addition to exercising, and I already lost six kilograms!”
“I feel lighter.”
“My lower tummy is flatter than before!”

Prevents geriatric diseases and promotes health and beauty

The rise of obesity and the disclosure of the risks of weight-related diseases once resulted in a diet craze-an obsession with weight loss. However, it has been proven that simply losing weight is not the solution since other problems arose, such as yo-yo dieting, malnutrition and muscle loss.

essential. Obesity becomes a problem because excessive body fat has a negative impact on health.
In obesity, controlling body fat is more critical than losing weight!



+ 식물학 및 역사

크랜베리(Vaccinium macrocarpon)는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진달래과(Ericaceae)의 낙엽 활엽관목이다. 줄기는 쇠줄처럼 가늘고 가지가 약간 갈라지며 길이가 약 5~20cm (2~8 inches) 자란다. 열매는 둥글며 지름 1cm 쯤으로 빨강계 익으며 결실기는 9~10월이다.

크랜베리는 수세기 동안 민간요법에서 창상과 괴혈병의 치유와 요리에 애용되었으며, 최근 미국 FDA를 비롯한 많은 연구기관들의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열매 자체 뿐만 아니라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형태로 상품화되고 있다.

크랜베리

+ 주요성분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카테킨, 트리테르페노이드, B-하이드록시부티르산, 구연산, 말산, 글루쿠론산, 벤조산, 엘라직산, 비타민 C

+ 효능·효과

17세기부터 서양에서도 혈액순환완화, 위장장애, 간장질환, 구토, 괴혈병, 암 등의 치료요법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민간에서는 해열제, 하제, 항담즙분비제, 항악취제, 이뇨제, 수렴제 등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 연구를 통해 입증된 크랜베리의 효능은 다음과 같다.

>> 요로(Urinary Tract)

그동안 크랜베리가 소변을 산성화시켜 요도 감염증(urinary tract infections)을 예방,유지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Rutgers 대학의 Howell 박사는 연구를 통해 크랜베리의 요도에 부착되어 있던 항생제 민감성 세균 및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항부착(anti-adhesion 또는 anti-stick)효과가 요도 감염률을 낮추는 것이라 밝혔다.

또한 Bonn대학의 연구원들은 cranberry주스가 체내에서 알칼리화 작용을 하여 비뇨기 질환은 물론 결석의 치료에 유용하다고 발표하였다.

>> 궤양(Ulcers)

크랜베리 주스는 위궤양의 주요 원인균인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이 위점막에 부착하는 것을 억제하여, 위궤양의 예방 뿐만 아니라,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으로부터 초래되는 위암, 위염, 소화불량 등에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심장병(Heart Diseas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크랜베리 주스를 섭취함으로써 고밀도 콜레스테롤(HDL-cholesterol)이 평균 10%까지 증가하고 혈청 항산화 능력(plasma antioxidant capacity)이 121%까지 상당히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상승수치는 심장병 위험을 약 40%까지 감소시키는 것과 상응한다고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Joseph Vinson박사는 지적하였다.

>> 치아(Dental)

미국 치과학회에서 발표된 연구결과(7)에 의하면 크랜베리 주스가 치아 플라그를 형성하여 치주 이상을 발생시키는 세균의 부착을 막아 충치?잇몸병등 각종 치주질환의 예방으로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문헌

1. HerbalGram, 1996:38:51-54, The Journal of the American Botanical Council (미국 식물 위원회지)
2. <http://www.cranberryinstitute.org>
3. http://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02-06/rtsu-cmo061802.php
4.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유럽 임상 영양학회지) (2002) 56, 1020-1023.
5. Burger O, Weiss E, Sharon N, Tabak M, Neeman I, and Ofek, inhibition of Helicobacter pylori adhesion to human gastric mucus by a high-molecular-weight constituent of cranberry juice. (크랜베리 주스의 high-molecular-weight constituent에 의한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의 위점막 부착 억제), Critical Reviews in Food Science & Nutrition

(식품과학 및 영양학 평론), 2002.42.

6. Cranberry Health News (크랜베리 헬스 뉴스) Vol.2(3)
7. Weiss EI, Lev-Dor R, Kashamn Y, Goldhar J, Sharon N, Ofek I. Inhibiting interspecies coaggregation of plaque bacteria with a cranberry juice constituent. (크랜베리 주스 성분 에 의한 플라그균의 부착 억제) JADA, 1998. 129:1719-1723



Cranberry



+ Botany and History

The North American cranberry, *Vaccinium macrocarpon*, is a member of the family Ericaceae, and is a broad-leaved, low-growing, woody evergreen shrub. Its stems resemble thin cables, with branches that are slightly split and that grow to roughly 5-20cm (2-8 inches) in height. Its fruits are round, red and about 1cm in diameter. It is usually harvested in September or October.

For centuries, cranberries have been popularly used as traditional remedies for treating wounds and scurvy, as well as in cooking. A number of research institutions including the USFDA have recently reported scientific research on this plant that has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Cranberries are sold in a variety of forms, including juices and health supplements as well as fresh berries (1, 2).

+ Major Ingredients

Flavonoids, anthocyanosides, catechin, triterpenoids, B-hydroxybutyric acid, citric acid, malic acid, glucuronic acid, benzoic acid, ellagic acid, vitamin C and others(1).

+ Efficacy & Benefits

Therapeutic applications of cranberries documented during the 17th century included the relief of blood disorders, stomach ailments, liver problems, vomiting, appetite loss, scurvy, and cancer. In folk remedies, they have been used as a fever reducer, laxative, anticholeric, deodorant, diuretic and astringent.

The efficacies of cranberries proven in recent research are as follows.

>> Urinary Tract

Until recently, it has been believed that cranberries acidified urine and prevented urinary tract infections. However, Dr. Howell at Rutgers University reported that the cranberry's anti-adhesion effect on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in the urinary tract decreases the occurrence of urinary tract infections (3).

In addition,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Bonn reported that cranberry juice triggers alkalization within the human body and is effective in treating calculus and other urinary disorders (4).

>> Ulcers

Cranberry juice inhibits the adhesion of *Helicobacter pylori* bacteria, a cause of peptic ulcers, to human gastric mucus (5). It also helps

prevent stomach cancer, gastritis and dyspepsia, which are all associated with infection by *Helicobacter pylori* bacteria.

>> Heart Disease

According to the research presented at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drinking cranberry juice could increase the level of HDL-cholesterol in the body by an average 10% and boost plasma antioxidant levels by up to 121%. Dr. Joseph Vinson of the University of Scranton in Pennsylvania has proposed that these findings suggest a reduction in the risk of heart disease of up to 40 percent (6).

>> Oral Health

It wa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Dental Association (7) that cranberry juice inhibits the coaggregation of certain oral bacteria responsible for plaque and periodontal disease. Cranberry juice is known to be effective in maintaining the health of teeth and gums by preventing various periodontal diseases including cavities and gum disease.

>> Reference

1. HerbalGram, 1996:38;51-54, The journal of the American Botanical Council
2. <http://www.cranberryinstitute.org>
3. http://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02-06/rtsu-cmo061802.php
4.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2002) 56, 1020-1023.
5. Burger O, Weiss E, Sharon N, Tabak M,

Neeman I, and Ofek. inhibition of *Helicobacter pylori* adhesion to human gastric mucus by a high-molecular-weight constituent of cranberry juice. Critical Reviews in Food Science & Nutrition, 2002;42.

6. Cranberry Health News Vol.2(3)

7. Weiss EI, Lev-Dor R, Kasham Y, Goldhar J, Sharon N, Ofek I. Inhibiting interspecies coaggregation of plaque bacteria with a cranberry juice constituent. JADA, 1998. 129:1719-1723





“꿈꾸는 정원에는 어떤 꿈들이 자라고 있을까”

에코네시안은 어떤 꿈의 씨앗을 꿈꾸는 정원에 뿌려 놓았을까, 자못 궁금하다

전통 한옥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넓은 마당이 자리잡고 그 마당 한가운데는 우물이 있다. 넓은 마당에서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내고 우물에서는 땅의 기운이 샘솟아, 집안에는 밝고 맑은 기운이 감돈다. 이러한 기운은 안과 밖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호지 문을 통하여 마당과 방안을 들락날락하고,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이에게 생명을 불어 넣는다.

남양알로에가 자리잡고 있는 에코넷센터에서 자연친화적인 원목계단을 따라 2층에 다다르면, 삼면의 투명한 유리로 된 사무공간을 배경으로 꿈꾸는 정원이 자리잡고 있다. 꿈꾸는 정원의 한 가운데에는 둥그런 분수대가 있고 그 밑에는 에코네시안이 뿌려놓은 꿈의 씨앗들이 흰 타일에 촘촘하게 박혀있다. 에코네시안의 꿈은 매일매일 분수로 정화된 물을 마시며 맑아지고, 근리공원의 맑은 바람을 쐬며 하루하루 짙은 초록으로 물들고 있다.

에코네시안은 어떤 꿈의 씨앗을 꿈꾸는 정원에 뿌려 놓았을까, 자못 궁금하다

꿈을 간직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의 꿈에 이름표를 달지 않았고, 꿈을 이루어 남기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이름을 적어 놓았다. 바람이 많은 사람은 하나의 타일에도 여러가지를 남기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물고기를 낚을때 어떤 하나의 그물코를 당기면 그물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고기가 다 올라오는 것처럼, 삶의 핵심을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자신의 소신이 명확한 사람은 한 두 단어나 문장으로 자신의 꿈을 표현하고 나머지는 여백으로 남겨 두었다.

Lotto 당첨에 대한 기대도 보이고, 인생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알로에 및 세계 천연물시장에서의 선두가 되겠다는 자신감과 희망도 도처에 뿌려져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꿈의 씨앗들은 어떤 것일까. 성공, 사랑, 건강, 기쁨, 세계여행, 사랑이 넘치는 가정 등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이 간절하게 뿌려져 있다.



그럼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서 버트란트 러셀의 행복론(CONQUEST OF HAPPNESS) 을 들춰본다. 그는 행복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먼저 무엇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살펴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각 개인에게 맹공을 퍼붓는 불행의 무수한 원인들 즉 어두운 인생관이나 세계관, 경쟁, 피로, 권태, 질투, 부질없는 죄의식 등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마치 서양인이 달을 그릴 때 둥그런 달을 직접 그리는데 반하여 동양인들이 주위의 구름을 통하여 달의 형상을 나타내는 식이다.

성공을 위해서 다른 요소들을 모두 희생하면서 하는 경쟁은 너무 비싼 댓가를 치른다고 말하면서 지나친 경쟁을 경계한다. 행복을 증진시키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찬양하는 감정을 증가시키고 질투를 감소시켜야만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말한다. 질투가 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대신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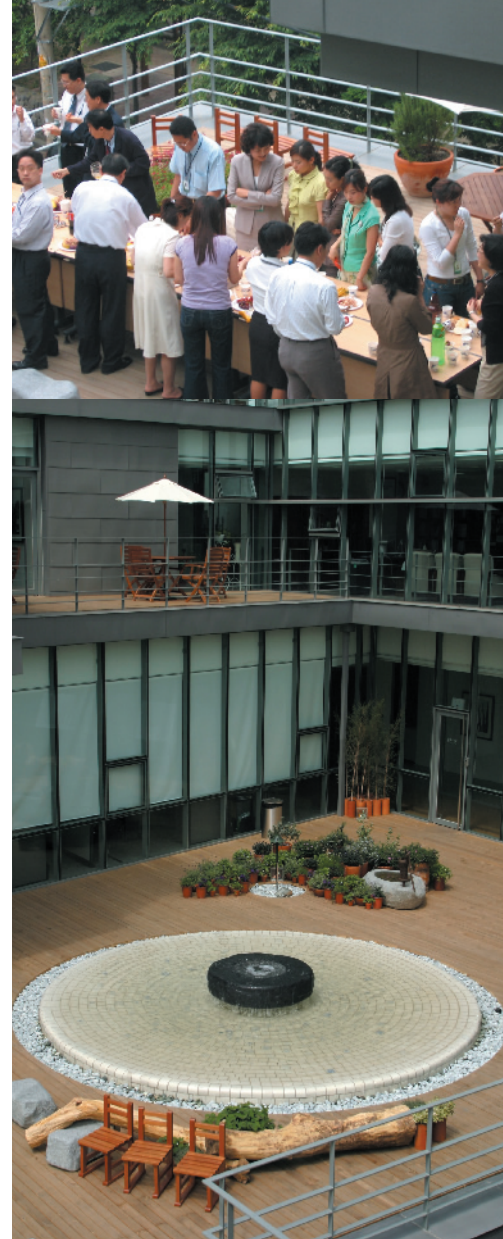
그는 행복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행복한 사람은 객관적으로 사는 사람이자 자유로운 사상과 폭 넓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며 이러한 사랑과 관심을 통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사랑과 관심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확보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결국 우리자신의 내면세계보다는 광활한 바깥 세계야말로 우리의 행복의 무진장한 보고라는 생활태도, 어떠한 불행도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용기, 밝고 명량한 인생관만 있다면 행복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에코넷 센터는 흔하디 흔한 박스형의 답답한 폐쇄형의 건물이 아니다. 여백이 있고 안과 밖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이 소통이 자유로운 공간에 에코네시안의 꿈의 씨앗들이 소중하게 뿌려져 있다. 맑은 물, 남쪽의 햇빛과 초록바람은 갖추워져 있다. 이제 여기에 에코네시안의 정성과 열정을 쏟아 붓는 일만 남아있다.

♥ ECONETIAN : 파리지민을 파리지앤느라 부르고 뉴욕시민을 뉴요커라 부르고 서울시민을 seoulite라 부르듯이, 에코넷 가족을 에코네시안이라 부릅니다.

글 - (주)남양 에코넷기업본부 자금팀 공승식 팀장





“What Dreams Do We Grow in the Dreaming Garden?”

By Seungsik Kong,
Financial Manager, ECONET corporate & Shared Service Center, Namyang Company, Korea

When you walk through the main gate of a traditional Korean house, you will see an expanse of garden spread out before you and a well placed in the center of the garden. The garden is blessed with the spirits of the heavens, while the energy of the earth gushes forth from the well, which in turn brings cheerful and energizing spirits to the house. This spirit flows back and forth between the garden and the inside of the house through papered sliding doors and revitalizes those living in the house.

At the ECONET Center where Namyang Aloe is located, when you go up the eco-friendly wooden stairs to the second floor, there is a dreaming garden surrounded on three sides by transparent glass, with office space beyond it. In the heart of the dreaming garden is a round fountain. At the bottom of the fountain, the white tiles are sprinkled with dreams sown by ECONETIANs. Every day, the dreams of ECONETIANs are supplied with water purified by the fountain and the refreshing air of the small park and become greener by the day.

I wonder what kinds of dreams ECONETIANs planted in the dreaming garden.

Those who keep their dreams to themselves did not personalize their tiles.
Those who have a strong will to realize their dreams and leave behind accomplishments wrote their names.
Those who have many wishes clearly tried very hard to express the many on a single tile.
When you go fishing, you can gather all fish by pulling a single net. Likewise, those who consider the essence of life or those who hold a clear belief expressed their dreams in one or two words or phrases and left the remaining space blank.

There are wishes to win the lottery.
A will to maintain a positive attitude in life can be observed.



Confidence and wishes to become a leader in the world’s aloe and natural product market are found everywhere.

What are other dreams planted by ECONETIANs?
Wishes for a happy life, including success, love, health, joy, a trip around the world and a home full of love, are sprinkled in earnest.

Then, what is happiness?

I looked to “The Conquest of Happiness” by Bertrand Russell.
He did not start with what happiness is; he first examined what makes people unhappy. He said that in order to become happy, people have to look for ways to overcome a myriad of causes of unhappiness, such as a negative view of life or of the world, competition, fatigue, boredom, jealousy and a groundless sense of guilt, that attack them brutally.
It is as when one draws a moon, while Westerners draw a full moon, Oriental people describe the shape of a moon using surrounding clouds.

He warns about excessive competition, saying that competing for success at the sacrifice of others is ultimately too costly.
He says that those who want to promote happiness need to foster admiration and reduce jealousy. Those with strong feelings of jealousy suffer from what others have instead of taking joy in what they have.

He writes...
A happy person is a person who lives objectively and has a liberal way of thinking and a broad range of interests.
A happy person secures one’s happiness through such intense love and interests and by a fact that his love and interests become the object of attention and love among others.

He says that, after all, you can attain happiness when you have the attitude that a treasure house of unlimited happiness is a vast, outer world rather than your inner world, the will and courage to believe you can overcome any kind of misfortune, and a positive and cheerful view on life.

The ECONET Center is not a box-shaped, closed building you usually see.
It has extra room and open space through which inside and outside can communicate freely.
The dreams of ECONETIANs are carefully sowed in this space where the free flow of thought and communication is assured.
Clear water, sunlight from the south and a refreshing breeze are already present.
Now only the devotion and passion of ECONETIANs need to be added.

♥ ECONETIAN : Just as the citizens of Paris are called Parisians, the people of New York, New Yorkers, and Seoul citizens Seoulites, we call the members of the ECONET family ECONETIANs.





김기석 교수

정리과정에 대한 방문과 정인지장이 본인이 맡은 경영과정에 그리고
평화의 힘이 평화와 함께 할 것이다.

80년대 초반 Wisconsin 대학 박사과정 공부 중에 이 병훈 사장의 명성에 접하게 되었다. 미 전역에서 가장 “코피 터지게” 공부시키기로 악명(?)이 높은 최고 명문과는 사회학과이었다. 약관의 청년 이 병훈은 이 과에서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고 이에 감동한 대학은 이 사장 부모를 졸업식에 초청한 사건이 터진 것이다. 필자는 그 즈음 오늘의 청강대학교 이수형 학장 내외와 형제처럼 지내고 있었기에 그 청년에 주목을 하고는 있었으나 그의 실력은 잘 몰랐다. 두 오누이의 자당이신 현재 정 희경 박사는 60년대 중반 이래 서울대 은사이었기에 형제 우의를 나눈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 인연이 만남의 계기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차세대 경영인으로서 이 사장을 흠모하고 또 기업으로서 에코넷(ECONET)를 참으로 사랑하게 된 것은 그 때문이 아니다. 청강 회장이 창건하고 이 사장이 충실하게 이어받아 더 확충한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달하자는 경영철학의 실체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우연찮게, 에코넷 대단위 생산 기지를 차로로 방문하였다. 필자가 속한 일가기념사업재단

◆ 나의 경험

-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학생처장) 기록관장(현)
- (재)일가기념사업재단 상임 이사(현)
- 유한신(대한가톨릭교회) 재직(현)
- 재학처사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Harvard/ Stanford/ UCLA/ 전직 하석회(현) 대우(현)사/ 이대(현)사 하석회(현)사

(<http://www.ilga.or.kr>)의 후원회 회장이시기도 한 현재 선생의 안내를 따라 재단 간부로 구성된 방문단은 멕시코 탐피코 공장을 위시하여 인근 새로 가꾸는 농장의 땅을 밟았다. 일하는 농부와 만나 대화도 나누고, 방문객이 늘 그러하듯, 같은 식사도 함께 나누었다. 일행은 차로 야밤에 국경 이민관 심사를 통과하여 텍사스 알로콧을 방문하였다. 이듬해 필자가 안식년을 맞아 러시아 연해주의 극동대학교에서 방문교수로 일하던 중 우연찮게 유니젠 러시아 지사장의 야랑 덕에 크라시노 농장 땅을 밟는 귀한 기회도 가졌다. 이어 일가재단 관계자와 함께 중국 해남성의 가신촌 농장 땅도 밟이시리도록 밟아 보았고 일원만 해양단지 모래사장을 달려보기도 하였다. 대단위 생산기지 농장 땅을 밟을 때 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가나안농장을 일군 일가(一家 Ilga) 김 용기 장로였다. 필자의 스승이자 장인인 농사꾼이었다.

일가는 새벽 5시 기상 즉시 일하기 시작하였으니 아침형을 넘는 “새벽형” 인간이었다. 요일에 따라 4, 6, 10킬로를 차로로 달렸으니 요즈음의 “말아톤” 선수였다. 당시 머리가 돈 “미친”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였다. 그가 80평생 외롭 한 길을 걸으며 추구한 목표는 오직 하나 빈곤해방이었다. 그의 삶과 사상은 빈곤에서 우리를 구하는 나침판과도 같았다. 그런 일꾼들의 노고 덕에 우린 규모로 보아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하였다. 빈곤에서 완전 해방되었나? 실은 그렇지 못하다. 상대적 빈곤의 굴레가 여전히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 점점 더 벌어지는 빈부격차, 만연된 상대적 박탈감과 그리고 안타까운 무임승차자 증가가 경제 비약의 발목을 잡고 있다. 좌절감에 성난 눈을 부릅뜨고 하루를 사는 백성이 한 둘이 아니다. 이 상대빈곤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추락한 남미의 몇 나라의 비극이 눈에 선하다. 이런 위기감에서 밤 잠 못 이루고 있을 시기 필자는 에코넷 생산 현지를 찾았고 그곳에서 되살아난 일가 선생과 그 정신을 본 것이다.

인간의 땀과 자연이 상생과 조화를 거듭하니 생명을 지키는 천연생산물이 만들어 지고 있었다. 경영 철학대로 가꾸는 대단위 생산기지 현장에서 필자는 우리 미래와 희망을 찾은 것이다. 청강 회장과 이 사장이 내린 크고 작은 결정과 실천을 알 때마다 필자는 그것은 바로 일가 선생이 하였음직한 일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곤 전율을 느끼기조차하였다. 이 사장 그리고 모든 에코네시안에게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다. 창업 정신을 잘 지키고 실천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흘린 땀에 폭 젖은 자연은 분명 우릴 번영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땅으로 안내할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일지도 모른다. 에코넷이 이 시대 큰 숙제인 상대적 빈곤의 척결에 앞장 설 때 기업도 위대해 질 수 있다.





Prof. Kiseok Kim

In the early 1980s while working on my Ph.D.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I learned of the reputation of CEO Bill Lee. At the time, the University's sociology department that was the most prestigious in the US, and students were also notorious for burning the midnight oil. In a similar fashion, Bill demonstrated exceptional ability even at an early age by publishing a paper jointly with his advisor. Impressed by his remarkable achievements, the university is said to have extended a special invitation to Bill's parents to his graduation ceremony. At that time, I was a close friend of Bill Lee's sister, Soohyung Lee (currently the President of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and her husband. Naturally, I was keeping abreast of Bill's progress, but was apparently unaware of the breadth of his competence. Dr. Heegyeong Chung, Bill and So-hyung's mother, had been my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mid-'60s, and Bill and I were like brothers. Although I first came to know Bill through this connection, this is not the reason I admire him as a next-generation business executive and truly love ECONET as a company. I see in Bill the essence of the business philosophy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which was introduced by the late Chairman Yunho Lee and inherited and

further expanded by Bill. Purely by chance, I visited ECONET's large production bases one after another. Guided by Dr. Chung, chairman of the Supporters' Clubs for the Ilga Memorial Foundation (<http://www.ilga.or.kr>), with which I am involved, a delegation of foundation executives visited the Tampico plantation in Mexico as well as a new plantation under development nearby. We had a chance to chat with local farmers working in the fields, and just as other visitors do, we sampled the local food. At midnight, the delegation journeyed across the US border to visit Aloecorp in Texas. The following year while on sabbatical, I worked on my own research as a visiting scholar at the Far East National University in Vladivostok. I had the good fortune to visit the Kraskino plantation, thanks to the generosity of the president of Unigen Russia. Then, along with Ilga Foundation staff members, I toured Jiaxin Town Farm on Hainan Island, China. After an extensive tour, my feet were quite sore so I ran along a sandy beach at the Riyue Bay Marine Complex. Every time I see one of these large plants, I am reminded of someone: Yong-ki Kim, the founder of Canaan Farm, who was not only a farmer, but my mentor and father-in-law. Mr. Kim, known by the Korean term of respect "Elder Kim", got to work the moment he woke up, at five o'clock in the morning. He was not merely a morning person; he was an early morning person. Depending on the day of the week, he ran four, six or ten kilometers a day. Today, he could have been a marathoner, but at that time, he was ridiculed as a madman. Throughout his life of 80-some years, he followed a singular path and strived for one goal: the eradication of absolute poverty. His life and philosophy may be likened to a compass that

leads the way out of poverty. Thanks to the labors of those like him, Korea was able to join the ranks of the world's top ten economies in terms of export volume. Have we completely overcome poverty then? Not really. We are still under the yoke of relative poverty. An ever-widenin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 widespread sense of loss and a rising number of free-loaders are holding us back from sustained economic development. More than ever, citizens endure frustration day in and day out. The tragedy suffered by several Latin American countries that failed to overcome relative poverty and collapsed was a vivid memory. I, personally, was haunted by the sense of crisis in our country, and at times I couldn't even sleep thinking about the situation. Then, I happened to visit several ECONET production bases and was able to witness the revival of Elder Kim's ideals and his spirit. Natural products are created when the synergy and harmony of human efforts and nature are sustained over time. I discovered our future and aspirations at the large-scale production bases, which we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corporate philosophy. Every time I learned of decisions made and actions taken, large and small, by the late Chairman Yun-ho Lee and by CEO Bill Lee, I was astonished to see that they were exactly as Elder Kim would have done. I wish only one thing from Bill and all ECONETIANS: that you continue the founding philosophy as you have so far. Nature combined with your labors will no doubt help guide us to the land of prosperity, justice and peace. It may be the land of Canaan,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ECONET can become greater when it takes the lead in eradicating relative poverty, a major issue yet to be resolved/a major issue that must be resolved.

Nature combined with your labors will no doubt help guide us to the land of prosperity, justice and peace.

◆ Profile

-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SNU (Served as Vice-chancellor for Student Affairs and Director of Archives)
- Standing Director of Ilga Memorial Foundation (incumbent)
- Executive Committee Member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incumbent)
-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Harvard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UCLA, the Far East Research Institute,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and the board of Higher Education,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Indonesia

급증하고 있는 오아시스 라이프 사이언스의 매출

세일즈 팀(사업 개발팀)



오아시스의 세일즈팀과 마케팅팀은 지난 6개월간 정말로 바빠 움직였다. 지난 5개월간 10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며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현재 월 평균 약 12%의 증가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가입률은 월 15%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주문 배송 부서는 매월 2만5천건 이상의 주문을 내보내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예상되는 대규모 증가에 대비하여 물류 운영을 미국 중앙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전체 주문의 55% 이상이 Auto-ship (자동 배송) 방식에 의한 것으로, 즉, 고객이 매월 자동적으로 제품이 배송되도록 사전에 신청을 해 놓은 것이다. Auto-shop 주문은 매월 8%씩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최초 주문도 20% 이상 늘어났다.

사람들은 급격한 성장 배경에 대해 종종 궁금해하는데,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 우리의 과학자들이 훌륭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덕분에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 현장의 Associate (건강 설계사)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전보다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우수 성과 달성자에게 과거 어느때 보다도 더 많이 보상을 제공하고 성과를 인정해주고 있다.

세일즈 팀에서는 여러가지 새로운 판촉 활동을 실행하여 새로운 고객이 우리의 제품을 체험해보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무료로 샘플을 제공하고, “1+1” 행사도 실시하고, 매월 마지막 5일 동안에는 “고객 주간”이라고 하여 제품 재고 정리 세일 제도를 도입했다. Associate에게는 담당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특별 행사를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 또한, 상위권의 실적을 달성하는 최우수 Associate를 위한 별도의 전용선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주간 단위의 추가적인 현금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으며, 8월에 개최 예정인 연례 행사 초대 티켓도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Conference call을 통해 우수 성과자의 실적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톱 리더들은 모두 콜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세일즈팀과 마케팅팀은 Associate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자료를 선보여 우리의 체험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메시지를 간단 명료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뛰어난 업적을 인정하였다. 또한 신규 Associate과 고객들을 위하여 새로운 소비자 교육 및 유지 계획을 마련하였다. 모든 신규 Associate과 고객은 우리의 제품을 처음 사용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이메일, 전화, 월간 우편물 발송을 통하여 총 12차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들은 수석 과학 책임자 스티븐 체린스키의 저서 “신진대사 계획”도 한 부씩 받는다. 우리는 고객과 Associate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매출 확대에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매출을 10%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일즈 조직은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설명회를 도입하여 초대객들에게 식사를 겸하며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점심 식사를 겸한 설명회가 매주 회사에서 개최되며, 매회 수백 명씩 행사에 참석하곤 한다. 점심 식사 비용으로 5달러를 부담하면 식사와 함께 회사 안내와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기술, 교육, 성과 인정을 확대 제공하고 있으며, 덕분에 사기가 진작되고 있다. 2005년에는 2004년에 비해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아시스에서는 팀워크가 단순히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방식의 일부로 실천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팀에 대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반가운 소식들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세일즈팀 팀원들의 말, 말, 말:

1. 브리슨 토마스, 어소시어트 서비스 지원

본부와 현장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며, 문제 발생시 이를 처리하는 등 톱 리더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 샬린 켈럼, 어소시어트 서비스 지원

Oasis@Home 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로브 칼니스키, 세일즈 애널리스트

오아시스 식구가 된지는 5년 반이 넘었고, 최근에 수수료 부서에서 사업 개발부로 옮겼습니다. 통계 집계 외에도 어소시어트가 실적 수당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는 방안을 전화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4. 새런 펠, 세일즈 코디네이터

“일단 회사에 오면 한 순간도 지루한 순간이 없습니다.”

5. 줄리 다비, 프로젝트 세일즈 매니저

세일즈 팀의 신참으로서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아시스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의 성실한 태도와 힘찬 에너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6. 리즈 호지스, 필드 서비스 / 어소시어트 대외 업무 매니저

1인 다역!

7. 스코티 쿠푸스, 사업 개발 담당 이사

저는 전문적인 친구입니다. 즉, 나의 역할은 모든 어소시어트가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친구들을 사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팀의 목표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으로 구성된 전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 편집자 주

• 최근 Oasis의 기록적인 Sales증가에 대한 공을Marketing Team과 나누고자 하는 Scotty 이사님의 의도에 따라 본문에 Sales & Marketing Team으로 종종 언급되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 두 팀에 모두 박수를 보내줍니다. Marketing Team은 다음에 따로 소개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 Charleen Kellum은 허리 부상으로 집에서 요양 중이라 전체 사진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Chaleen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글 - 세일즈팀과 마케팅팀 전체를 대표하여 스코티 쿠푸스 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오아시스에서는 팀워크가 단순히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방식의 일부로 실천하고 있다.



Sales are Soaring at Oasis Life Sciences ...

Sales Team (Business Development Team)

Scotty Kufus writing for the entire Sales and Marketing Teams

At Oasis, teamwork is not just a word, it's a way of life.

Our Sales and marketing teams have been busy the past two Quarters. We have grown more than 100% in the past 5 months, a company growth Record! We are growing on average around 12% monthly and enrollments have increase 15% monthly.

Shipping Department is sending out more than 25,000 orders every month and we are expanding our distribution operation to the center of America to prepare for massive growth in the next few years. More than 55% of the orders on Auto-ship, which means people automatically want products shipped, every month. We are growing Auto-ship orders by 8% monthly and have increased our initial web orders by more than 20%.

People ask why we are growing all of a sudden ... well, there are many reasons.

- Our scientists are formulating great products, and people's lives are changing!
- Our field associates are telling the story more often and more effectively than ever.
- We are rewarding and recognizing more people than ever before.

In the sales department we have implemented many new sales promotions and reasons for new customers to try our products. We offered FREE products, two for one specials and last minute product inventory clear outs the last 5 days of each month, we call it 'customer week.' We encourage all of our associates to call their customers and introduce them to these specials. We also added a special associate care line for our very special top achievers.

We provided additional weekly incentives of cash and FREE tickets to our annual event in August. We reward them and recognize them on national conference calls that we host each week on Monday nights. All of our top leaders attend thee calls, sometimes there are more than 1000 people on the call.

Our sales and marketing teams have been rolling out new materials to support the associate organization, improving their ability to tell our story, simplifying our message and recognizing their outstanding achievements. We have instituted a new consumer education and retention plan for our new associates and customers. All new associates and customers will receive 12 communication contacts via email, phone calls or monthly mailings during their first 3 months of trying our products. They will all receive a copy of the book "Metabolic Plan" by our Chief Science Officer Stephen Cherniske. We anticipate keeping our customers and associates longer and providing more education leads to more sales. We anticipate impacting annual sales by more than 10% with this program.

Our sales organization has adopted a luncheon and evening presentation format that encourages guests

to be introduced to our company around a meal. We provide weekly luncheons within our offices and have a few hundred people attending these events. They all pay a small fee of \$5.00 for the luncheon and they get a tour of the company and some education.

We are offering more technology for faster response time, more education, more recognition and morale is up. We anticipate growing in 2005 more than 100% from 2004. At Oasis, teamwork is not just a word, it's a way of life. We are very proud of our team and we expect great things in the near future.



➔ *Comments from the sales team*

1. Bryson Thomas, Associate Services

I am on of the liaisons between Corporate and the Field, to assist our top Leaders by taking care of issues that come up, so we can ensure World Class Service.

2. Charleen Kellum, Associate Services

I take care of the Oasis @ Home events.

3. Rob Kalnitsky, Sales Analyst

I've been with Oasis for over 5 1/2 years and recently moved from the commissions department into business development. In addition to keeping track of the numbers I also train associates over the phone on how to organize their businesses to maximize their commissions.

4. Sarann Pel, Sales Coordinator

"There is never a dull moment at work."

5. Julie Darby, Project Sales Manager

Being the newest member of the sales team I have much to learn. I'm impressed with the attitudes and energy of everyone I work with here at Oasis.

6. Liz Hodges, Manager of Field Services/Associate Relations

I' m a woman with many hats!

7. Scotty Kufus,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I am a professional friend. My job is to make it easier for all associates to make more sales and friends. Our team's goal is to build a worldwide network of the healthiest families on earth.

➔ *Editor's Note*

- Please understand that the Sales and Marketing teams are both mentioned in this article because Mr. Scotty Kufus,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would like to attribute the recent explosive growth of sales in Oasis to the Marketing Team as well as the Sales Team. Let's give both teams a big round of applause. We will feature the Marketing Team in the next issue.
- Charleen Kellum is presently at home recuperating from her back injury and was unable to be present for the group photograph. We all wish Charleen a speedy recovery.

세계 최대의 준비된 알로에 생산기지 곤잘레스!



ECONET 가족 여러분,

이곳 멕시코 곤잘레스에서는 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이미 37℃를 오르내리고 있다. 물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가지만, 세계 최고 품질의 알로에 재배를 위해서는 최적의 온도이다. 첨부된 사진을 통해 개화기를 맞이한 알로에를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일년간 우리 농장에서는 알로에가 무럭무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곤잘레스 농장에서는 최근에 가공 시설의 용량을 확충하고 대규모 변화를 완료하였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알로에 가공 시설은 세계 최대 규모로, 미국 텍사스/멕시코 국경에서 약 3백마일 남쪽에 위치한 멕시코 곤잘레스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회사의 경영진은 멕시코 현지 운영 시설중 여러 가지를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으며, 이곳과 텍사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 확충을 성실히 지원하였다. 곤잘레스 농장 직원들은 모두 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으며, 이들의 노고 덕분에 생산 용량을 확대하고 알로에 젤과 생잎(whole leaf) 형태 모두에 대해 우수한 가공 방법을 도입하는 결실을 맺었다.

이외에도, 멕시코 농장에서는 “선진”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건조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생산량의 대폭적인 개선 및 제품 역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았을 때, 이 기회를 빌어 멕시코 곤잘레스에서 동고동락하는 동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 한계 용량에 근접하여 운영되는 공장에서는 가공 및 건조 기술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멕시코 농장 동료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인내심 덕분에 이를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다. 물론 곤잘레스 농장 인력의 우수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훌륭한 집단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행운이다.

또한, 이병훈 대표, Derek Hall 유니베라 CEO, John Rhees 알로콧 CEO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가공시설에 필요한 투자를 지원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우수한 품질과 선진적 운영을 고집하는 경영진과 함께 하게 된 것은 회사 전체 차원에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전세계 ECONET 가족 모두가 이곳 멕시코를 방문하여 새로운 시설들을 직접 둘러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도 물론 여러분이 있는 곳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 알로콧 부사장 에반

to my fellow associates world wide, from

Gonzales Mexico!

By Evan, VP of Aloecorp



It is late spring here and the temperatures are already pushing above 100 degrees F. That's hot for all of us, but just right for the best Aloe plantation in the world. The picture included, captures the Aloe plant in bloom, which assures a new year of continued growth for the Aloe plants on our plantation. This is appropriate, as similar growth and major change is being completed at our Gonzales fac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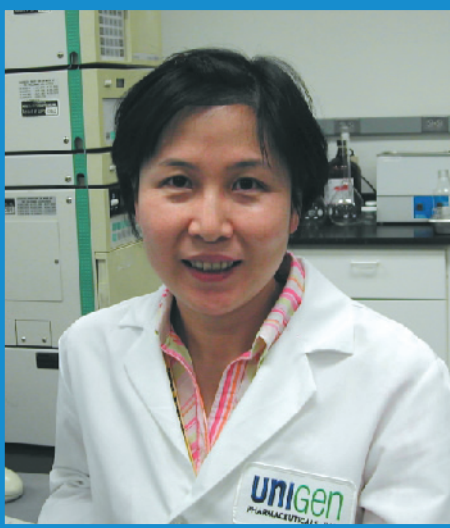
As most of you know, we operate one of the largest Aloe processing facilities in the world, and it is located in Gonzales, Mexico which lies about 300 miles south of the Texas/Mexico border. This past year, our management has allowed us the opportunity to upgrade many of our operations here in Mexico, and all the employees here and in Texas have worked diligently to complete the many upgrades required to assure our continued capacity for servicing our customers. During these upgrades, contributions have been made by almost of our associates in the Gonzales facility. The hard work is beginning to pay off in the way of increased production capacity and overall better processing methods for our Aloe products including both Gel and Whole Leaf.

In addition, we have recently commissioned the new drying facility in Mexico, and the technology employed is “World Class”. This technology will provide significant product improvements, and product capabilities in the years ahead.

As I look back at the last year, I would like to use this article as a way of saying Thanks to all our associates in the Gonzales, Mexico facility. Significant change in process and drying technologies is never easy in a plant that is operating near capacity. Our associates in Mexico have been extremely dedicated and patient with the chang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Given the quality of people we have in our facility in Gonzales, I would have expected nothing less!! We are very fortunate to have such a great group of people working with us.

Also, our thanks go to Mr. Lee, Mr. Hall and Mr. Rhees for their vision to the future, and support for necessary investments in our facilities. We are very fortunate as a company to work with an executive team that is committed to Quality and World Class operations.

Hopefully as time allows, each of our Global associates will have a chance to visit us here in Mexico, and tour our new installations. We would certainly enjoy having a chance to visit with each of you!!



거짓말 절대 아닙니다!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취업 1개월 내에 그만둘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그 시한을 몇 일전에 통과했다. 현재 나는 미국 유니젠의 품질 관리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중이며, 나의 업무와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해 흡족해하고 있다. 오늘은 이 새로운 직장에 몸담게 되면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품질관리 업무와 무관한 재미 있었던 일화 한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미정

Unigen USA 배제 관리과, 배제관리 연구원

약 2주전에 있었던 일이다. 우리 회사를 둘러보기 위하여 워싱턴 타코마로부터 오신 한국 교포들께 오아시스 제품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라는 부탁을 받았다. 너무나 급하게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옷을 갈아 입을 새도 없이 실험복 차림으로 달려갔다.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약 50명 정도 모여 계셨는데, “Ageless”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반짝반짝해 보였다. 모두 50세는 넘으신 분들이셨는데, 나도 그분들 연세 정도가 되면 몸에 좋다는 건강 보조 식품이 있다면 이에 대해 똑같은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박사 연구원으로 소개되었고, “아...저 사람이 박사래...”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박사”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유니젠의 조직 구조를 간략히 소개를 해 드렸다. 그리고 나서 ‘Ageless’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으로 들어갔다. 유효 성분은 무엇이고, 우리 인체 내에서 어떻게 무슨 작용을 하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 말씀드렸다. 그러다, 갑자기 내 입에서 거짓말이 튀어 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마치 “Ageless”를 섭취하여 기적적인 효과라도 체험한 것 처럼 열의에 찬 목소리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보내드리려고 추가 주문을 해 놨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이 대목에서는 흐뭇한 미소를 띄우며 대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었다.

이는 거짓말이었다. 너무나도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그동안 “Ageless”를 직접 먹어볼 기회가 없었다. 내가 그동안 먹어본 제품은 실험실에서 테스트중인 것이 전부였다. 몇 시간 후, 상당히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한 분께서 강의실에서 함께 점심을 하자고 하셨다. 다른 일 때문에 함께 식사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공손히 말씀드렸다. 대신 좀 있다가 안녕히 돌아가시라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다시 한번 그곳을 들렀었다. 그런데 이분들은 나를 위해 떡이랑 음료수 등 간식거리를 한 보따리 사 놓고 있었다. 이날 오셨던 교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뵈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점심은 회사에서 물론 대접해 드리지만 그래도 순수 한국 먹거리를 챙겨오셨던 것이다. 또한,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그 순간, 나는 훌륭한 직업을 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학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제 “Ageless”를 마시기 시작한 지 약 2주정도 되었다. 처음 먹을 때는 나에게 정말 효과가 있어서 그 날 오셨던 분들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놀라운 효과를 느끼고 있다. 나는 Full-time 직장인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Part-time 엄마밖에 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적어도 질적인 면에서는 Full-time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Ageless 덕분에 그 소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저녁 시간에도 기운이 넘쳐나 엄마 노릇을 더 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그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과 나를 위해 추가 주문도 해 놓은 상태다. 결국,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던 것이다.

I Am Not A Liar

There is a statistical study showing that most people attempt to quit their job during the first month. Fortunately, I just passed the famous deadline couple of days ago. I am a scientist for the quality control (QC) department in Unigen, U.S.A. So far, I have enjoyed my work a lot. Interacting with my colleagues and my wonderful group members has been great.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another joy of mine besides QC work that I never expected from this very new jo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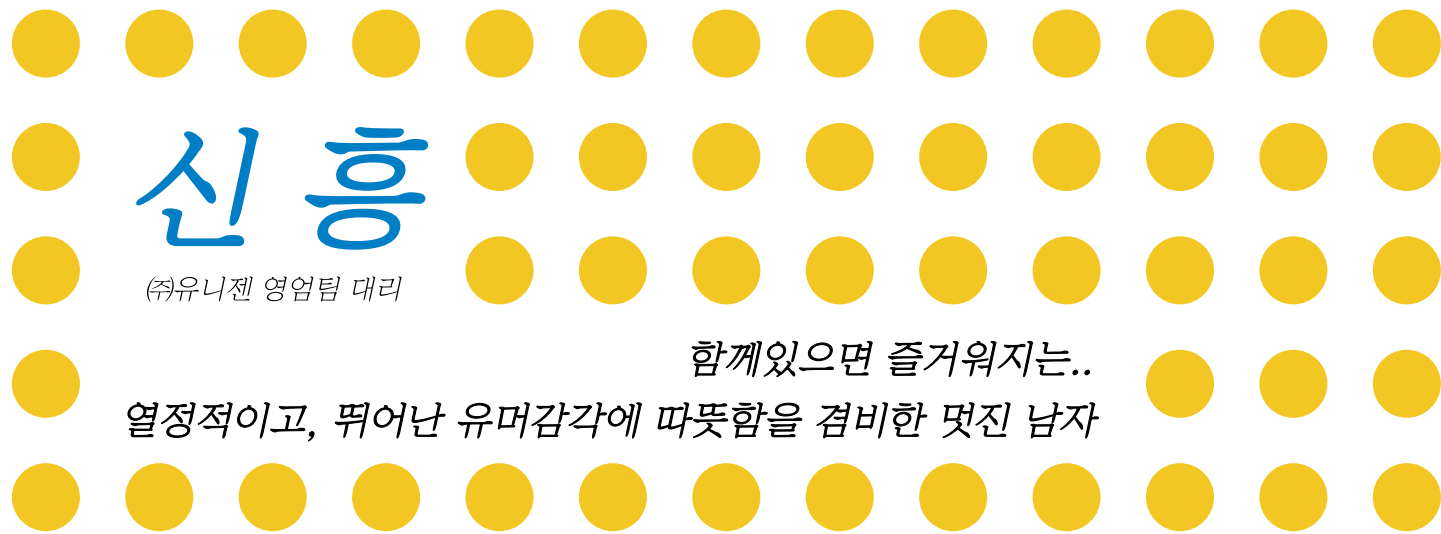
About two weeks ago, I was asked to explain some scientific background related to Oasis products to a Korean elderly group who was taking tour of our company from Tacoma, WA. It was a last minute notice, so I had to run to the training room with my lab coat on. There were about fifty people looking very excited with sparkling eyes about “Ageless”. They were all over 50 years old and older and I was thinking to myself that when I become their age, I would probably show the same interest in good health supplements as they would. I was introduced as a PhD scientist, and I could hear some people murmuring ‘oh, she is a scientist’. At that very moment, I wanted to take the opportunity to advertise the product because they TRUST scientists. I first gave them general introduction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Unigen. Then I started talking about ‘Ageless’; what the active components are, and why or how they work in our body. Then, all of sudden, I started lying. I found myself talking to them in an eager voice as if I had also taken ‘Ageless’ and got miraculous effect. I told them that I am trying to get more to send to my parents and in-laws in Korea. They even nodded with smile when I said the last part.

That was a lie, a bold face lie. I hadn’t even gotten a chance to get the eatable Ageless. The only products I had were the ones we test in our lab. Couple of hours later a very old Korean lady asked me to join them for lunch in the training room. I politely refused her invitation because I couldn’t do so at that time, but a little later I dropped by to say good-bye to them. They already packed some goodies for me when I got there. They were yummy rice cakes and beverages. These elderly Korean people reminded me of my grandparents. The company offered lunch of course, yet they still brought some nice food for themselves; all traditional Korean style food. They also didn’t forget to thank me. Right at that moment, I felt that I got the right job, the job that I’ll love for a long time and the job that can serve people better and improve the world. Science for better.

I have been taking the Ageless for almost two weeks now. When I started drinking it, I really wanted the product to work for me, so that the Korean elderly group won’t think of me as a liar. Thank God! It worked wonders for me. I’m a full time worker, which makes me a part time mom. But I wished to be a full time mom (quality-wise) as well. Ageless made me the full time mom. It has been giving me the energy for evening times, so I can be a better mom. I ordered more for my parents and myself just like I told the Korean elderly group during our meeting. So after all, it turned out that I am not a LIAR.

Mijeong Jeong

QC Scientist, Dept. of QC, Unigen USA



유니젠에 가면 가장 먼저 들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신 흥 대리입니다.

언제나 친절하게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는 그 이기에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워 집니다.

전국 대리점의 든든한 담당으로, 영업팀의 팀장으로 유니젠의 매출활성과 발전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을 신 흥 대리를 이번 칭찬주인공으로 추천합니다.

한결 같은 모습의 입사동기...

입사동기로서 5년 동안 그를 알아오면서 느끼는 건, 변함없이 모든 일에 적극적이면서도 활발하게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처음 만나 같이 연수를 받으면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한결 같은 모습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 동기입니다.

남자가 봐도 멋진 남자...

무슨 일이든 열정적으로 자기 일처럼 임하며, 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면 거기에 모든 열정을 쏟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남자가 봐도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안부를 먼저 다가가서 묻는 자상함도 있고, TV드라마 보며 함께 웃고, 함께 아쉬워 하는 섬세함도 있습니다. 아이처럼 축구게임에 빠져 손이 빨게 지도를 빠져들고, 국내,외를 넘나드는 해박한 스포츠식도 있고, 자동



차를 좋아하는 카 매니아이며,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멋진 남자입니다.

대학 때 몸담던 응원단의 단장님으로 지금도 학교행사 때는 세심하게 챙겨주고, 친히 행사진행도 해주는 멋진 선배님이기도 하구요..

그토록 즐겨 피우던 담배를 끊어, 이젠 담배냄새조차 싫다는 대단한 사람이며, 병천 기숙사생활에 적응해서 맛있는 야식으로 인해 뱃살을 빼야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이번에 새로 출시된 메타블럭을 권유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동료이기에 ... 이 기회를 빌어 칭찬하고 싶습니다.

항상 원하는 일 모두다 잘 이루어 지길 바라며, 유니젠의 든든한 영업팀의 기둥으로서, 멋진 동료로서 언제나 변함없이 웃음 잃지 않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함께 술 한잔 기울이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계획한 목표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길 바라며, 건강하길 빕니다

글 - 두번째 칭찬주인공 (주)남양알로에 생명과학연구소 김진완 전임 연구원

● ● ● **Heung Shin** *Assistant Manager at Unigen Korea*

Written by the second runner, Jinwan Kim,
Senior Researcher at the Life Science Research Institute of Namyang Aloe



A wonderful guy who is great to have around Full of passion and warm-hearted, with a good sense of humor.

When you step into Unigen Korea, the first thing you'll hear is the voice of Assistant Manager Heung Shin.
He is always the first to approach others, greeting them with a kind hello. Everyone naturally feels comfortable and happy to be around him.
I'd like to recommend Assistant Manager Heung Shin as this month's runner for the "Relay of Praises." As both a sales team leader and a reliable supervisor who looks after agencies throughout the nation, Heung must no doubt be working hard at this very moment to boost sales and further develop Unigen Korea.

A colleague with a resolute attitude...

In the five years since the day we both came to work at the company, I have consistently seen him taking initiative and being proactive in all his responsibilities. He is truly a wonderful colleague who has constantly devoted all his energies from the moment I first met him at a company training session until today.

Truly a man's man

Heung is a great person who approaches everything passionately as if it was all his own responsibility

and does his utmost to achieve goals once they are set. He's definitely a man's man.
Nevertheless, he is very congenial, always asking after others, and he is very sympathetic, sharing in the joys and sorrows even when he watches a drama on television.
He is so addicted to a soccer video game, like a kid, that his hands are swollen and red. He is highly knowledgeable in sports - Korean as well as foreign. He is also a car fanatic. Above all, he is a fantastic guy who places the utmost value on human relations.
During his university years, he served as a leader of the school's cheering group. He is a great alumnus who attends events at his alma mater and participates as a master of ceremonies.
He is such a firmly determined person that he quit smoking, which he enjoyed so much, and he is now disgusted by the smell of a cigarette. He is striving hard to achieve a new goal: losing weight. He adapted well to dormitory life in Byeongcheon and has gained weight from late-night snacks. Perhaps I should recommend the newly launched Meta Block to him!

He is such a wonderful colleague that he is indescribable. Nevertheless, I'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praise him.

I sincerely hope you will realize all your dreams. I hope you will keep on smiling at all times and enjoy a pleasant future, as a trustworthy pillar in Unigen Korea's Sales Team and as a great colleague. I hope we will remain friends who go out for drinks together anytime and that we will continue to support and encourage each other. I also wish you success in achieving this year's resolutions and good health.





세계 일류 “보스”

그녀를 좀 더 알게 돼서 하는 말인데 우리 팀 모두는
그녀를 상당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모두들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으며 그녀를 상당히
존경하게 되었다.

우선 이 글을 기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칭찬하고자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칭찬을 받을 만한 ,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을 받아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다. 내가 마사 존슨 (오아시스의 커스터머 서비스 매니저)에 대해 글을 쓰기로 결정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마사는 참으로 장점이 많은 사람이다. 우선, 그녀는 강인하고, 똑똑하며 인정이 많다. 내가 그동안 함께 일했던 매니저들 중 단연코 ‘최고’ 다. 혹시 자기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답을 찾아내며, 고민거리가 있어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면, 바쁜 일과 중에도 시간을 내 꼭 들어준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항상 짬을 내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묻곤 한다.

마사가 로즈와 함께 이곳에 처음 왔던 날, 우리는 모두 그녀를 두려워했던 것 같다. 내가 고객 담당팀내의 사람들에게 처음에 마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고 묻자, 이구동성으로 “무서웠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을 변화 담당자로 소개했다. 처음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그녀의 필요성을 정말로 실감하기 시작했다.

오아시스의 현재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는 마사와 같은 리더와 함께 하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녀는 고객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항상 신경을 쓰며,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애쓴다. 마사는 그녀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 부서가 “세계 일류” 수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팀원 모두가 우리 회사의 사업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 처음에는 그녀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쏟아 붓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오래지 않아 그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 마사의 우리의 미래를 늘 염두에 두고 있으며 각자의 관심분야가 뭔지 알고 싶어한다. 그녀를 좀 더 알게 돼서 하는 말인데 우리 팀 모두는 그녀를 상당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모두들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으며 그녀를 상당히 존경하게 되었다.



마사는 슬하에 3명의 자녀와 7명의 손자, 손녀를 두었으며, 에드라는 멋진 남편이 있다. 워싱턴주 스페너 웨이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녀의 딸 스테이시에게 집에서의 어머니는 어떠냐고 묻자, 집에서도 역시 부지런하며 늘 뭔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돌보거나, 울타리를 손보거나 또는 정원을 돌보기도 한다. 또 다른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마사가 자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상하고 정다우며 또 늘 감싸준다고 들었다.

마사와 함께 일을 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난 지금, 그녀 밑에서 일하는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훌륭한 매니저”라는 한결 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마사의 성실함, 뛰어난 의욕, 그리고 훌륭한 근무 태도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그녀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녀는 진정한 “세계 일류 보스”이다.

선

월요일 아침에 마사의 사진을 찍으려고 줄곧 그녀를 따라다녔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쉽지가 않았다. 늘 그렇듯이 바쁜 월요일인데다 마사가 여기 저기 문제를 해결하는라 어쩌나 분주하게 돌아다니는지.. 이제 겨우 찍을 수 있겠다 싶으면 벌써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할 수 없이 말하는 중간에 끼어 들고 회의를 방해하면서 겨우 몇 장 찍었다.

마사, 귀찮아하지 않고 참아줘서 고마워요...꾸벅.

· 사진 / 선 리 · 글 / 리사 라론드

● ● ● *World Class* **Bo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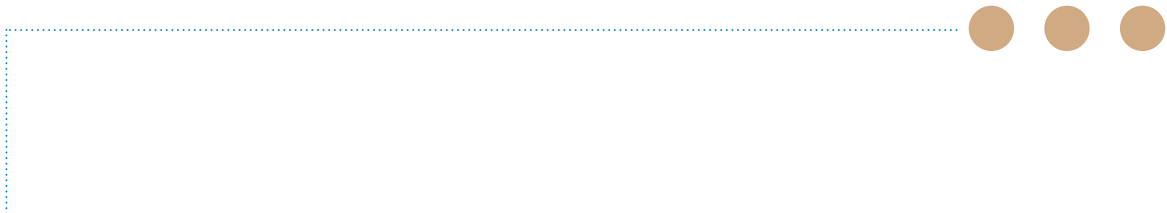
Our whole team thinks she is pretty special, now that we’ve gotten to know her. She doesn’t seem so intimidating and we all have a great deal of respect for her.

Pictures by Sean Lee / Written By Lisa LaLonde

● ● ● I feel very lucky to of been asked to help with this article. The person that I am praising deserves it and so much more. There are many reasons why I chose to write on Martha. She has a lot good qualities. For starters she is strong, smart, and compassionate. She is truly the BEST manager that I have ever had. If you ask her a question she doesn’t have the answer too she will do out of her way to find it. If you have a problem and need to talk, she makes to time to listen to you. Even if she is busy she always manages to take the time to ask how everything is going.

The first day she came in here with Rose, I think that we all were afraid if her. When I asked all of the people on our Customer Care team what they thought of her, they all agreed; she was scary. She said she was a change agent. We didn’t realize what she meant at first, but as time went on we started seeing how much we needed her.

With Oasis growing as quickly as it is, we are very fortunate to have Martha as our leader. She is always thinking of ways to make things a little less stressful for us as well as the customers. She is constantly striving to make our department “world class”, as Martha says, and wants for her whole team to be knowledgeable in all the areas of this business. At first everything she presented to us seemed like an information over load, but we soon found out how helpful it was. She has our future in mind. She wants to know what our passions are. Our whole team thinks she is pretty special, now that we’ve gotten to know her. She doesn’t seem so intimidating and we all have a great deal of respect for her.



Martha has three children, seven grandchildren, and a very nice husband name Ed. Her family lives with her on a farm in Spanaway Washington. O spoke with her daughter Stacy and asked her how her mother is when she is not at work. She told me that Martha is a hard worker at home and is always doing something. She is wither taking care of her animals, building fences, or planting trees and flowers. I also spoke with another close family member who told me that Martha is very caring, loving and protective of her family and the ones she loves.

After working with Martha for a while now, you can ask any of her direct employees and they all agree that she is a great manager. I personally look up to Martha because she is a hard worker, exceptional motivator and has an outstanding work ethic. We are all happy to have her with us. She truly is a “World Class” Boss.

Sean

I stalked Martha on Monday morning to take some pictures of her. It was more challenging than I thought. It was typical crazy busy Monday and Martha moved so quickly here and there solving problems. The moment I thought I got her she has gone already… I couldn’t help but being a brat and interrupting her meetings and conversations. Thank you for enduring me, Martha.





유니젠

손님응대 및 회의 준비에 대한 올바른 방법

에코넷(ECONET) 기업들의 활발한 경영활동 증가와 성장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우리 에코넷(ECONET)에 관심을 갖고 회사견학을 오거나 각종 회의 참석관계로 방문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넷 기업들의 좋은 기업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응대하는 올바른 방법들을 우리 에코네시안(ECONETIAN)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문화의 수준을 한층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그 시작의 의미로 이번 호에는 손님응대 및 회의준비에 대한 올바른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전준비

방문객의 목적, 도착시간 및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해 두어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회의준비에는 주요일정, 안건(Itinerary & Agenda)등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에게 미리 공지하여 사전준비 및 방문객 지원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합니다.

>> 교통편의 :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하여 약도와 편리한 교통편 정보를 알려드리고, 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합니다.

>> 숙박 : 1박이상 일정으로 오시는 방문객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숙박예약을 해두어야 하는데 예약자의 취향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고려합니다. (호텔등급/Room Type: Single ,Double/Non-Smoking, Smoking/조식포함 여부 등)

2. 당일준비

>> 주변정리 및 환영문구: 회사내부 정리는 물론이며, 특히 건물까지 들어오는 도로 주변정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입문에 환영문구를 부착해 두면 방문객의 마음을 보다 더 편안하게 해 드릴 수 있고, 회사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 복장 : 리셉션 담당자는 회사의 이미지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깔끔하고 정숙한 정장차림을 하도록 하며 회사빨지와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알수 있는 사원증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 도착 후 안내요령 : 방문객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출입문 및 주차장까지 미리 나가서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며, 건물에 들어오시면 회의장 및 응접실까지 안내를 해드려야 합니다. 방문객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탈 경우에는 안내자가 먼저 타서 '열림' 버튼을 누르고 있고, 내릴 때에 맨 나중에 내리도록 합니다.

>> 음료 및 다과 준비

- 오전에는 식사대용으로 부드러운 빵, 화과자 및 초코렛류를 핑거푸드(간단히 손으로도 먹을 수 있는 음식)로 준비하도록 하고 되도록 손에 많이 묻어나지 않는 종류로 준비합니다.
- 음료는 커피와 녹차류는 기본으로 하며, 너무 달지 않은 과일주스 등을 추가합니다. 당일 기온에 따라서 생수는 차가운 정도를 조절하여 충분한 양을 준비합니다.

>> 기타 점검사항

- 소모품 준비 : 프로젝터, 노트북, 레이저포인터, 칠판, 마커펜, 칠판지우개 등을 미리 준비함
- 온도 및 습도 :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해서 온도 및 습도를 수시로 체크하고 조절함

3. 사후관리

방문객들께서는 회사 기념품이나 제품 등을 선물해 드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문에 대한 감사편지 등을 보내드려 마지막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 에코넷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코넷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밝은 표정으로 손님을 대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마음자세를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우리 각자의 노력이 어우러질 때 에코넷은 진정한 Global 기업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글 - (주)유니젠 경영지원실 홍영주 기자

Unigen Korea

As a first step toward this goal, we’d like to review the recommended protocol for receiving visitors and arranging conferences.

By Reporter Jainie Hong, Staff of Unigen Korea



As ECONET companies become increasingly active and engage in a greater variety of business activities, the frequency of visits to our companies, both for company tours stemming from interest in ECONET or for business meetings, is increasing. Therefore, in order for ECONET companies to present a good corporate image, we’d like to share with ECONETIANs tips for receiving and addressing guests so that we can further improve our corporate culture. As a first step toward this goal, we’d like to review the recommended protocol for receiving visitors and arranging conferences.

1. Advance preparations

The purpose for the visit, number of visitors and arrival time needs to be meticulously confirmed in advance so we can address them properly. When preparing for a meeting, in particular, a meeting schedule, itinerary & agenda need to be prepared and communicated to participants in advance in order to prevent any blunders in preparations and hosting visitors.

>> Transportation: In the case of first-time visitors, they need to be provided with a location map and transportation information via e-mail and/or fax. It should also be verified in advance whether any visitors desire pick-up services.

>> Hotel rooms: For visitors staying overnight or longer, hotel rooms needs to be reserved. In such a case, the following option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ccording to visitors’ preferences: hotel rating; room type (single or double); smoking or non-smoking; inclusion of breakfast, etc.

2. Preparation on D-day

>> Cleaning and a warm welcome: In addition to the building’s interior, any entrance path connected to the building should also be tidied up. If a welcome message is displayed at the entrance, it will comfort visitors and show that the company is being attentive to them.

>> Attire: Keeping in mind that you represent the image of your company, a person receiving visitors should be neatly dressed in a suit. A company pin and an employee ID card showing your department and name should be put on.



>> Escort guidelines: Before visitors arrive on the company’s premises, an escort should go out to the entrance or parking lot to welcome them. Once they enter into a company building, they need to be escorted to a reception room. When riding in an elevator with visitors, an escort should enter the elevator first and hold the “open” button. When leaving the elevator, an escort should be the last person to step out.

>> Beverages and snacks

· In the morning, simple finger foods such as pastries, soft cakes and chocolates should be prepared. The selection should include snacks that will not be overly sticky or dirty the hands. (Please refer to pictures.)

· As for beverages, a basic menu should include coffee and green tea. Fruit juice that is not too sweet may be added. Sufficient drinking water should be prepared by adjusting how chilled it is depending on the temperature on the day of the visit.

>> Other checkpoints:

· Preparation of office supplies: a projector, a laptop computer, a laser pointer, a blackboard, markers, erasers, etc.

· Temperature and humidity: In order to maintain a comfortable indoor environment, room temperatures and humidity should be checked and adjusted at all times.

3. Follow-up

Visitors may be presented with a company souvenir and/or products. A thank-you letter may also be sent to visitors to show our continued consideration.

Although these guidelines will be helpful in improving the image of ECONET, what is most important, above all, is a thoughtful manner and greeting guests with a pleasant air, remembering that each and every one of us represent ECONET. When we all make such efforts, ECONET can gain standing as a truly global company.

김치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



한국의 전통 음식문화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김치”일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으로 떠들석 했을 때 김치 추출물이 조류독감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김치는 수출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금은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94%로 제1의 수입국가이며 미국·홍콩·대만 등이 그 뒤를 이은다. 그 만큼 이제 김치는 세계적인 식품으로 맛과 영양이 풍부하기에 우리 에코넷 가족 여러분께도 김치중에 가장 즐겨 먹는 배추김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김치란 ...

주원료인 절임 배추에 여러가지 양념류(고추가루, 마늘, 생강, 파 및 무 등) 젓갈을 혼합하여 제품의 보존성과 숙성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젖산생성을 통해 발효된 제품을 일컫는다. 한국의 가정에서는 주로 김치찌개, 김치볶음밥으로 응용하여 먹지만, 요즘은 햄버거 가게에 들르는 외국인도 햄버거 아닌 김치버거를 찾는 손님이 늘고 있다. 김치 먹는 나라가 100개국을 웃돌 만큼 국제화되면서 햄 대신 김치를 곁쳐 먹는 퓨전 김치가 세상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듯이 김치버거는 ‘동서양이 융합한 독특하고도 미래지향적인 제3세대의 맛’ 이라고나 할까? 한국의 한 이탈리아 식당에서는 김치 스파게티를 개발하여 별미로 인기를 끌었다. 스파게티의 주원료가 마늘과 고추라는

점, 그리고 음식 색깔이 같다는 점에 착안, 퓨전에 성공한 것이다. 김치 케이크도 제과점의 쇼윈도의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다. 김치를 잘게 썰어 말린 김치 빵은 씹을수록 발효미(發酵味)가 우리나라와 일본 등 미식(米食)문화권 관광객에게 마늘빵보다 인기가 높다고 한다. 김치의 비장하고도 오묘한 발효미에 착안, 제주도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김치 아이스크림도 개발했다. 잘 삭은 김칫국을 끓여 자극적인 맛을 약화시킨 다음 발효미만을 단맛과 조화시킨 것이다. 전통 김치 퓨전은 김치밥, 김치말이, 김치순두부, 김치전, 김치찌개, 김치주저리, 김치죽, 김칫국냉면 등 열 손가락 미만이었으나, 국제화의 진행으로 퓨전 김치의 전도는 광활하다. 오원미(五元味)라 하여 짜고 달고 시고 쓰고 매운 맛밖에 몰랐던 서양 사람들에게 삭은 맛, 곧 발효미라는 육원미(六元味)를 발견시킨 김치의 퓨전은 세계문화사에 큰 획을 긋기 시작했다. 이미 일본에서 김치 퓨전을 위한 대형 식품회사의 설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김치 등 한국 발효식품의 국제규격화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는데, 바로 김치 퓨전의 선점(先占)을 우려해서일 것이다. 동양문화권에서뿐만 아니다. 영화 ‘사브리나’에서 오드리 헵번이 요리를 배웠던 세계적 요리학교 르 코르동 블루 회장이 지난주에 대한, 프랑스 요리와의 퓨전으로 김치의 세계화를 약속했다. 김치는 음식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오묘한 한국문화의 동서 퓨전의 표본으로 문화사의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 김치의 효능

김치는 숙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젖산균의 새콤한 맛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위장내의 단백질 분해효소인 펩신(Pepsin) 분비를 촉진시키며 장내 미생물 분포를 정상화시켜 정장작용을 돕고 장속의 다른 유해균의 작용을 억제하여 이상 발효를 막을 수 있고, 병원균을 억제하여 항균작용을 한다.

또한 다량의 섬유소가 함유되어 있어 변비를 예방하고 장염이나 결장염, 성인병, 대장암, 위암 등을 예방한다.

또한, 김치는 비타민 C, 베타-Carotin, Phenolic 화합물, 클로로필 등의 활성성분에 의해 항산화작용을 거치므로 노화를 억제하며, 특히 피부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김치는 항산화 활성이 있는데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숙성적기의 김치에서 가장 높았다. 김치에는 젖갈류(수산물)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킴)도 폭넓게 사용되어 아미노산을 공급해 주는데, 밥에서 부족한 단백질을 보완해 준다. 또, 김치가 익으면서 새우젓, 멸치젓, 황석어젓등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공급원이 된다. 채소가 주체가 된 저칼로리 식품이며 식이성 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장의 활동을 활성화면서 체내의 당류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므로 당뇨병, 심장질환, 비만 등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 준비할 재료

배추 10포기(30kg), 굵은 소금 19컵(3kg) 무 3개(4.5kg), 쪽파 1단(400g), 갓 1단 (1kg), 미나리 2단(600g), 대파 반 단(400g), 마늘 10통(400g), 생강 3톨(100g), 고춧가루 10컵(800g), 따뜻한 물 2컵, 새우젓 1컵(250g), 멸치젓 1컵(200g), 생굴 1컵(200g), 생새우 2컵(300g), 소금, 설탕 각 적당량

❖ 만드는법

1. 싱싱한 배추를 골라 누른 겉잎은 떼고 큰 통은 사등분을 하고 작은 것은 반으로 가른다.
2. 굵은 소금을 조금 남기고 물에 풀어 조깅 배추를

소금물에 담갔다 건져, 배추 줄기 쪽에 소금을 약간씩 뿌려린 후 가른 단면이 위로 오게 큰 독이나 큰 용기에 차곡차곡 담아 절인다. 다섯 시간쯤 후에 위아래를 바꾸어 전체가 고루 절게 한다.

3. 절인 배추는 냉수로 물을 바꾸어 가며 깨끗이 헹구어 건져 소쿠리에 얹어 물기를 뺀다. 포기가 큰 것은 다시 반으로 가르고 굵은 뿌리 부분을 말끔하게 도려낸다.

4. 무는 몸이 단단하고 매끄러운 것으로 골라 잔뿌리는 떼고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2mm 폭으로 등글게 썬 다음 채 썬다.

5. 쪽파, 갓, 미나리는 다듬어 씻어 4cm 길이로 썰고 대파는 흰 부분만 어슷어슷하게 썬다.

6. 생강, 마늘은 껍질을 벗겨 씻어 물기를 빼서 절구에 다지고 새우젓은 건더기만 건져 곱게 다지고 젓국은 남긴다.

7. 생굴은 껍질을 골라내고 적당히 간이 된 소금물에 헹궈 씻어 건진다.

8. 생새우는 티를 골라내고 씻어 물기를 뺀 후 분마기에 곱게 간다.

9. 고춧가루를 따뜻한 물에 불린 후 새우젓국, 멸치젓국을 넣어 더 불게 둔다.

10. 무채에 불린 고춧가루를 넣어 고루 버무려서 빨강색을 들인 후 소금을 넣어 간을한다.

11. 다진 마늘, 생강과 새우젓 건더기와 생새우 간 것을 넣어 버무린 후 미나리, 갓, 쪽파, 대파를 넣고 가볍게 섞는다.

12. 부족한 간은 소금, 설탕으로 더 맞추고 마지막으로 굴을 넣어 함께 버무린다.

13. 넓은 그릇에 소를 덜어서 놓고 배춧잎 사이사이에 소를 펴서 넣은 후 겉잎으로 전체를 싸서 배추를 자른 단면이 위로 오도록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는다.

14. 항아리에 김치를 4/5 정도까지 채우고 위는 배추 겉잎 절인 것을 덮고 꼭꼭 눌러 둔다. 오래 두고 먹을 김치는 위에 소금을 넉넉히 뿌려 저장한다.



글 - (주)남양 경영지원팀 최순미 대리

Kimchi the Traditional Korean Fermented Food



One dish that is undoubtedly indispensable in Korea's traditional food culture is kimchi. Recently, when the entire world was experiencing turmoil because of avian flu, a study was released indicating that kimchi extracts are effective as a cure for the illness. Naturally, kimchi drew much attention in the world press. Since then, kimchi exports have risen steadily. Japan is currently the leading importer of kimchi and accounts for 94% of total exports, followed by the U.S., Hong Kong, and Taiwan. Kimchi, rich in flavor and nutrients, is now a globally recognized food product. In this issue, we'd like to introduce cabbage kimchi, the most popular of the many kinds of kimchi, to ECONET families.

✕ What is Kimchi?

Kimchi is a food that is fermented through the production of lactic acid at low temperatures to ensure its preservation and ripening. It is made by combining salted Chinese cabbage - a main ingredient - with various seasonings (red pepper powder, garlic, ginger, green onions, radish) and salted fish. In a Korean home, kimchi stew or kimchi fried rice are popular dishes made with kimchi. These days, however, many foreigners dropping by fast food restaurants in Korea order a kimchi burger instead of a hamburger. Kimchi, a global food product consumed in over 100 nations, began to captivate people's palates with kimchi fusion dishes as people came to prefer burgers stuffed with kimchi

rather than ordinary beef patties. According to a report by Reuters, a kimchi burger is a "unique and futuristic, 3rd generational taste combining the East and the West." An Italian restaurant in Korea developed kimchi spaghetti and became a popular attraction as a delicatessen. Based on the idea that the main ingredients of spaghetti are also garlic and pepper and that kimchi and spaghetti are the same color, the fusion of spaghetti and kimchi was a great success. Kimchi cake also has its corner in bakery window displays. Kimchi bread, made with chopped pieces of dried kimchi mixed in, offers the tangy taste of fermentation. Among tourists from countries where rice is a staple, such as Japan, kimchi bread is more popular than garlic bread. Harnessing the mysterious and intense fermented taste of Kimchi, a restaurant in Jeju Island developed kimchi ice cream. The edge is taken off its spiciness by boiling well-fermented kimchi soup, leaving only the fermented flavor to harmonize with the sweetness. There are only a handful of traditional kimchi fusion dishes, among them kimchi rice, kimchi tofu stew, kimchi pancakes, kimchi stew, kimchi wraps, kimchi porridge and kimchi cold noodles. However, with the advancement of globalization, the future of fusion kimchi is unlimited. Westerners were only aware of five tastes: salty, sweet, sour, bitter and spicy. Kimchi fusion dishes, which offered them a sixth taste - fermented-, have now begun to open a new chapter in the world's cultural history. In Japan, the founding of a large food company that will offer kimchi fusion food is already underway. China is strongly against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Korean fermented foods such as kimchi, most likely because they are concerned about a kimchi fusion food craze. The kimchi boom is not limited to Eastern culture alone. Mr. Andre J. Cointreau, chairman of Le Cordon Bleu, an internationally renowned cooking academy where actress Audrey Hepburn studied cooking in the film Sabrina, visited Korea last year and agreed to globalize kimchi by developing kimchi fusion dishes. Kimchi is no doubt a major event from both a culinary standpoint as well as in cultural history as an example of East-West fusion in Korean culture.

✕ Efficacy of Kimchi

In kimchi, lactic acid bacteria produced during the fermentation process give a sour flavor to mature kimchi and stimulate the secretion of pepsin, an enzyme that works to break down proteins in our digestive systems. They also help digestion by normalizing the distribution of microbes in our internal organs and preventing excessive fermentation by inhibiting the growth of other bacteria in our intestines. Kimchi is rich in fiber, which helps prevent constipation and such diseases as enteritis, colitis, geriatric diseases, colon cancer and stomach cancer, among others.

Kimchi also acts as an antioxidant because it contains such nutrients as vitamin C, beta-carotene, phenolic compounds and chlorophyll. As a result, it can help slow aging, especially of the skin. The anti-oxidation properties of kimchi depend on the fermentation process, and are most strongly observed in properly ripened kimchi. Salted fish, a source of amino acids, is also popularly used in kimchi. It is useful as a protein supplement - a nutrient rice lacks. As kimchi matures, the protein in the salted shrimp, salted anchovies and salted broadbills gets broken down into amino acids. As a low-calorie food with vegetables as its main ingredient, kimchi is also rich in dietary fiber and stimulates the bowels. As a result, it lowers blood sugar and cholesterol levels and helps prevent geriatric diseases such as diabetes, heart disease and obesity.

✕ Ingredients

Chinese cabbage-10 heads (30kg), coarse salt-19 cups (3kg), radish-3 pieces (4.5kg), young green onion-1 bunch (400g), got (Indian mustard leaves)-1 bunch(1kg), minari (Korean watercress) -2 bunches (600g), large green onion-1/2 bunch (400g), garlic-10 bundles (400g), ginger-3 pieces (100g), red pepper powder-10 cups (800g), warm water-2 cups, salted shrimp juice-1 cup (250g), salted anchovies-1 cup (200g), fresh oysters-1 cup (200g), fresh shrimp-2 cups (300g), salt, sugar

✕ How to prepare

1. Select fresh cabbages and remove any discolored

outer leaves. Cut the trimmed large heads of cabbage in quarters and the small heads in halves.

2. Dissolve the salt in the water, setting aside a little for later use. Soak the sliced cabbages in the brine and drain. Pile the sliced cabbages upright in a big container or bowl filled with brine, sprinkling salt around the stems. After about five hours, turn all cabbages upside down to make sure they are thoroughly salted.

3. Rinse the salted cabbages thoroughly in cool water and drain well by placing in a bamboo basket. Cut the large heads of cabbage into two pieces again and neatly cut out the thick part of the root.

4. Select hard and smooth radishes, remove the roots and wash thoroughly. Cut into 2 mm slices and shred.

5. Trim and wash young green onion, got and minari. Cut them into 4 cm-long pieces. Slice the white part of the large green onion diagonally.

6. Peel and wash ginger and garlic. Dry them and pound them in a mortar. Chop salted shrimps into large pieces and set aside the liquid.

7. Remove the shells from the fresh oysters. Wash them in weak brine water and drain.

8. Remove any dirt from the fresh shrimp. Wash, drain and grind them in a grinder.

9. Soak red pepper powder in warm water and add salted shrimp juice and salted anchovy juice. Let sit for a while.

10. Mix the shredded radish with the red pepper powder mixture to dye the radish red. Add salt to taste.

11. Mix radish with chopped garlic, ginger, salted shrimp and ground fresh shrimp. Add minari, got, young green onion and large green onion. Toss gently.

12. Add salt and sugar to taste, if necessary, and finally add oysters.

13. Put the so (the stuffing) in a large bowl. Pack the so between the layers of cabbage leaves. Wrap the stuffed cabbage with the outer leaves and pile in a crock with the sliced section of the cabbage facing up.

14. Pile the stuffed cabbage to fill the crock to four-fifths. Cover the surface with the salted outer leaves of the cabbage and press down hard. Sprinkle salt generously over the finished kimchi for long-term storage.



한국의 에코넷센터에서 꿈과 행복을 느끼며..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리무진 버스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차창 밖의 세계는 나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질서있게 운행중인 많은 차들, 도로옆의 높고 웅장한 현대식 건물, 아름다운 한강의 모습...

이튿날 우리는 이번 한국방문의 목적인 한국 본부 신사옥 입주식에 참석하였다.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귀빈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우리도 그런 행사에 한 구성원으로 참석하는데 대해 많은 자부심을 느꼈다. 신사옥을 꼼꼼히 관람한 후 음악과 함께 행사가 시작되고 열렬한 박수소리가 나자 나는 맘속 깊이 우리 ECONET 가족이 더욱 번창하고 건강하시길 마음속 깊이 기원하였다.

이후 우리는 중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남대문시장을 방문하였다. 처음보는 물건도 많았고 신기한 장면도 많았다. 특히나 가장 놀라운 건 사람이 너무 많아 발디딜 틈 없이 가만히 서 있으면 떠밀려가는 것이 이곳이 중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남양의 진천 공장을 방문하였다. 중국 해구 사무소에 전시해 놓은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무척이나 궁금했다. 직접 생산라인을 돌아보고 생산시설, 위생상태 등을 관람하고 향후 우리 중국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제품을 생산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남양 직원들과의 저녁식사는 나에게 ECONET 한 가족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였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으나 한 가족으로서 아주 열정적으로 대해줬으며 그 열정적인 마음은 손짓 발짓을 통해 서로에게 전달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유니젠 병천연구소는 내가 우리 남양가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해주었다. 그 웅장한 연구소의 규모와 연구소의 여러곳을 안내해주는 따뜻한 그 마음은 지금도 나에게 식지 않고 남아있다.

끝으로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준 회사에 감사드리며 한국 방문시 여러모로 도움을 준 한국본부의 직원들 그리고 유니젠 및 관계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글 - 중국 하이난 알로컴 수잔

Longing for ECONET Korea from Hainan Island...

By Susan, Hainan Aloecorp / China

Breathless with anticipation, I arriv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view that spread out from the window of the limousine bus I had boarded to go to my hotel was a new world to me: endless rows of vehicles flowing in perfect order, modern skyscrapers lining the roads, a beautiful view of the Han River, and more.

On the following day, we attended a ceremony celebrating the opening of a new company building for the Korean headquarters - the main purpose for this visit. The event was attended by distinguished guests from a number of countries and VIP guests from Korea. We were very proud to be a part of such an event. After we toured every nook of the new office building, the ceremony began, kicked off with music and a roar of applause. I silently prayed for greater prosperity and good health for ECONET families.

After the event, we visited Namdaemun Market, which is extremely popular among Chinese visitors. Many products were so new to me and some of the sights were very interesting. However, the most surprising thing about Namdaemun Market was how crowded it is. My feet barely rested on the ground; otherwise, I would have been swept away by the crowd. In fact, it felt like being in China.

Next, we visited Namyang's Jincheon plant. I was very curious to see how the products displayed in the Haikou office are produced. A tour of the production lines and their sanitation procedures made me feel thrilled at the thought of

producing the same products in China in the future.

A dinner with some Namyang staff members made me feel that I am truly a part of the ECONET family. Although we spoke a different language, we were greeted very warmly, like members of the same family. I believe we communicated our warm-heartedness to each other through our gestures.

The last stop of our visit was Unigen Korea's research institute in Byeongcheon, which again made me feel proud to be a part of the Namyang family. The impression left by its grand scale and people's warm hospitality, which I felt as I was shown around here and there, is still vividly lasting.

Last but not least, I'd like to thank my company for providing me with such a wonderful opportunity and the staff at the Korean headquarters, Unigen Korea and other Korean affiliates for their kind hospitality and support.



There is a saying that a single good book can expand one's knowledge and guide one's life. A recent visit to the head office in Korea was like a good book to me.



남양알로에, 신사옥 ‘에코넷 센터’ 준공식
알로에 천연식물 연구로 세계적 기업 성장

세계 알로에 원료 시장 1위 기업 남양알로에가 지난 4월 6일 창립 29년만에 새 사옥에 둥지를 틀었다. 생태적인의 에코로지컬(Ecological)과 경제적인의 이코노믹(Economic)의 앞 글자를 따 에코와 네트워크(Network)가 결합된 ‘에코넷 센터’라는 이름이 붙은 남양알로에 사옥은 인류 사회의 발전을 위해 수직적으로 통합된 생태적, 경제적 네트워크라는 속뜻을 지니고 있다.



신사옥 은 지하1층과 지상5층으로 꾸며졌다. 기업이념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층 로비는 동서남북 모든 방향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투명 유리창으로 설계됐고 천정은 알로에 곡선을 따 디자인 했다. 화장실은 연구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로비 중간에 비커 모양으로 설계, 배치했다. 무엇보다도 이목을 끄는 공간은 마케팅 팀 남쪽에 자리잡고 있는 “꿈꾸는 정원”이다. 이 공간은 건물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작은 정원과 같은 느낌을 가져오며, 해외법인과 국내 직원들의 소망을 담은 타일을 붙여 분수대를 설치하였고 천연 허브를 심어 심터로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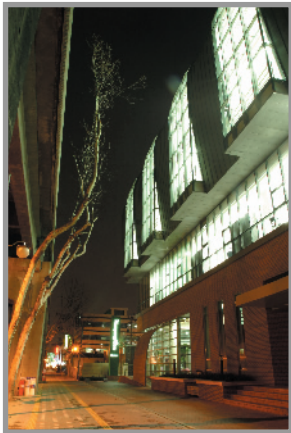
남양알로에는 무엇보다도 에코넷 센터가 알로에 원료 개발 분야는 물론 향후 바이오산업의 핵으로 떠오르는 천연식물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에코넷 센터 준공과 더불어 국내는 물론 미국과 멕시코,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에 걸친 에코넷 그룹연구와 마케팅을 전개하는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6일 거행된 준공식에는 이병훈 대표를 비롯하여 이상호, 임종석 의원과 박노해 시인 등 각계 각층의 인사 1백여명이 참여했으며 기념식수와 머릿돌 오픈식, 테이프 커팅 등으로 전개된 행사 1부와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등의 창립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Namyang Aloe Celebrates the Completion of its New Building, the “ECONET Center”

Growing into a global company in aloe and natural plant research

Namyang Aloe, the number one company in the world’s raw aloe material market, moved into its new home on April 6 - 29 years after its founding. Namyang Aloe’s new office building is called the ECONET Center, a combination of “eco,” the prefix in ecological and economic, and “network.” It also has the deeper meaning of being a vertically integrated, ecological and economic network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ECONET Center Tape Cutting



In keeping with its corporate philosophy, Namyang Aloe’s new building is certainly constructed in an environment-friendly way. The first floor lobby is designed so that it is surrounded by transparent windows, which allows people to have a view of all four directions. Its ceiling is designed to replicate the curved lives of aloe plants. In order to express the company’s image of continually striving in research, there is a restroom in a shape of a beaker placed in the middle of the lobby. The most eye-catching space by far is the “dreaming garden” to the south of the Marketing Team area. It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building and offers the atmosphere of a small garden. A fountain has been built using tiles that carry the wishes of the staff of overseas subsidiaries and Korean offices, and a rest area planted with natural herbs has been created.

Namyang Aloe expects the ECONET Center to play a crucial role in the company’s growth in the field of natural plant research, which is emerging as a core segment of future bio-industry, as well as in raw aloe development. With the completion of the ECONET Center, the company will be able to play a pivotal role in initiating ECONET group research and marketing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the U.S., Mexico, China and Russia as well as Korea.

Meanwhile, the completion ceremony, which was held on April 6, was attended by more than 100 distinguished guests from various spheres, including CEO Bill Lee, lawmakers Sangho Woo and Jongseok Lim and poet Nohae Park. The event consisted of two parts: the first included the planting of commemorative trees, the unveiling of a cornerstone and the ribbon cutting, and the second consisted of progress updates and the presentation of plaques of appreciation.



유니젠 관절기능 개선 신소재 유니베스틴 – 미국 뉴트라콘상 수상



유니베스틴은 30일 내에 관절 이상과 경직도를 상당히 해소시켰으며, 관절 기능을 향상시켰다.

유니젠파마슈티컬(Unigen Pharmaceuticals, Inc) 출시 소재인 유니베스틴은 금년도 뉴트라콘 국제천연물박람회(Nutracon & SupplyExpo)에서 뉴트라콘상(NutrAward)를 수상한 소재중 하나이다. 박람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투표에 의해 뉴호프내츄럴미디어(New Hope Natural Media)의 주관으로 수여되는 뉴트라콘상(NutrAward)은 2004년에 출시된 소재 중 가장 우수한 신소재에 수여하는 상이다.

유니베스틴은 두 가지 식물 추출물의 독특한 배합에 의해 개발된 신소재로 관절 건강과 운동성 개선 효과가 유전자 발현 검증, 단백질 억제 시험, 세포 실험, 동물 생체 실험 등을 포함하는 5가지 검증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미국 워싱턴에 자리하고 있는 Unigen USA의 부사장 리건 마일스(Regan Miles)는 “이번에 출시된 소재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얻은 성과”라며 “신약개발기술을 천연물 개발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상당히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5천종 이상의 식물을 분류하여 신제품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시장에 선보이는 모든 제품은 임상실험, 동물 안전성 실험 등을 거쳤으며, 인체내 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유전자를 통제하는지, 즉, 유전체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총 면적 2억2천만평에 달하는 미국 텍사스, 멕시코, 중국, 러시아 농장에서 천연 약용식물을 자체 재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니베스틴은 관절 건강을 위해 이용되는 표준 콘드로이친/글루코사민 성분처럼 지속적으로 작용 하여, 복용 후 이틀 후에는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이는 유니베스틴이 인체내에서 여러 감염 경로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마일스 부사장은 설명했다.

또한, 유니베스틴은 항산화 작용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unswick Lab 테스트 결과, ORAC 측정치가 5,604umole TE/g로, 비타민 C, E보다 높다

Unigen USA는 1996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6년간의 각고의 노력 결과, 유니베스틴 제품을 시판하게 되었다. 현재는 35명의 연구원이 연면적 3,400평의 R&D 시설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한두가지의 신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니베스틴을 구성하는 두 가지 추출물 모두 미국에서는 규제의 필요가 없는 GRAS (generally recognised as safe)로 분류되어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유니베스틴을 신소재로 인정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중이다. 건강 기능 식품 성분으로서의 최초 판매는 2003년 1월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며, 2004년에는 판매가 일본과 호주로 확대되었다. 유럽에서는 애완동물용 건강 보조 식품으로 2004년에 출시되었으며, 인체용 신식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금년에는 한국에서 건강 기능 식품을 통해 유니베스틴이 선보일 예정이다.

미국내 주요 구매업체는 Phillips Health, Twinlabs, Jarro, Oasis Life Sciences 등으로, 특히, Oasis는 AgelessXtra 브랜드로 판매되는 건강 음료에 유니베스틴을 활용했다.

“현재로서는 AgelessXtra가 일반 식품에 적용된 유일한 사례이지만, 식품에서의 이용 잠재력을 검토중인 기업이 한 곳 있다”고 마일스 부사장은 밝혔다.

유니베스틴은 물과 극성 유기 용매, 특히 알코올에 잘 용해되며, 입도는 80 메시이다. 주요 구성 성분은 Free-B-Ring 플라보노이드(60% 이상)와 플라반(10%)으로, 권장 복용량은 하루에 두 번씩 125mg 이다.

과학적 연구의 성과

캐나다 몬트리올의 임상실험 전문업체 JSS 메디컬 리서치가 실시한 위약대조, 무작위, 이중 맹검 실험 결과, 유니베스틴의 골다공증 증상 완화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연구결과가 1월호 학술지에 제출되었다.

이번 실험에서는 90명의 연구 대상자에게 위약(Placebo) 또는 유니베스틴을 1일 500mg씩 투여한 후,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대학의 골다공증 지수(WOMAC)와 건강 평가 질문서를 통해 효능을 측정하였다. 안전성은 혈압, 심장 박동수, PTT, 변잡혈반응 검사, 임상 부작용 발생 빈도 및 정도 등을 토대로 검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유니베스틴은 30일 내에 관절 이상과 경직도를 상당히 해소시켰으며, 관절 기능을 향상시켰다.

Joysa Winter (조인사 윈터)

Unigen Pharmaceuticals’ Uninvestin targets inflammation pathways for joint health

Joysa Winter

Uninvestin, the first ingredient launch by privately held company Unigen Pharmaceuticals, was one of two ingredients to win the NutrAward at this year’s Nutracon and SupplyExpo conventions. Voted on by attendees, the award given by New Hope Natural Media recognizes the best new ingredients of 2004. Made from a proprietary blend of two plant extracts, Uninvestin’s ability to improve joint comfort and mobility has been established in five testing models, including gene expression, protein inhibition assays, cell-based studies and in vivo animal models, the company reports.

“This ingredient is the result of many years of research,” explained Regan Miles, executive vice president of the South Korea-based company, whose North American headquarters is in Washington state.

“We are a pretty unique business model in that we apply pharmaceutical science to natural products. We have over 5,000 plants that we break down and use in our search for novel products. Everything we bring to market has human clinical trials behind it, animal safety trials, and we have full genomics as far as how these products work in the body - which genes they up- or down-regulate. We also grow all of our own botanicals on 180,000 acres around the world in Texas, Mexico, China and Russia.”

Uninvestin works like “night and day” from the standard chondroitin/glucosamine ingredients used for joint health because its effects are felt within only two days of use, Miles explained. “This is because it works on multiple inflammation pathways in the body,” he said.

The ingredient is also known for its high antioxidant activity. Brunswick Labs tests found an ORAC value of 5,604umole TE/g, which is higher than both vitamins C and E.

Unigen Pharmaceuticals was founded by a private investor, Bill Lee, in South Korea in 1996, and the company carried out six years of research before taking this, its first product, to market. Today the company has 120,000sq ft of R&D facilities, 35 active scientists, and a target of one or two new product launches each year.

Among the conclusions were that Uninvestin significantly reduced discomfort and stiffness, and improved joint function within 30 days.



Both of the extracts that comprise Uninvestin have GRAS status in the US, and Uninvestin is being considered for novel foods approval in the European Union. First sales of the ingredient in dietary supplements came in January 2003 in the US; by 2004, it had also reached Japan and Australia. Dietary supplements for pets were launched in Europe also in 2004, with human supplements awaiting novel foods approval. Then, just this year, Uninvestin will be launched in dietary supplements in Korea. Major US purchasers include Phillips Health, Twinlabs, Jarrow and Oasis LifeSciences, the latter of which has incorporated Uninvestin into its first beverage, sold under the AgelessXtra brand.

“That is the only food application it is found in right now, but one company is investigating its potential use in foods,” Miles said.

Uninvestin is freely soluble in water and polar organic solvents, especially alcohols, and comes in an 80-mesh particle size. It is made up of more than 60 percent Free-B-Ring flavonoids and 10 percent flavans. Its recommended dosage is 125mg twice a day.

Behind the science

A randomised, double 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conducted by JSS Medical Research in Montreal, Canada - which was submitted to a peer-reviewed journal in January - demonstrated both the safety and efficacy of Uninvestin in relieving symptoms of osteoarthritis.

In the study, 90 subjects were given either placebo or Uninvestin at a dosage of 500mg/day. Efficacy was measured using the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WOMAC) University osteoarthritis index, as well as a health assessment questionnaire. Safety was tested using measures of blood press, heart rate, and PTT and faecal occult blood, as well as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clinical adverse events.

Among the conclusions were that Uninvestin significantly reduced discomfort and stiffness, and improved joint function within 30 days.

(주)남양알로에 / Namyang Aloe



1 신제품 - 메타블럭

체지방 관리 전문 제품인 메타블럭이 5월 출시되었다. 본격적인 출하가 되면서 대리점과 설계사들의 전폭적인 환영을 받으며 성공적인 런칭을 했다. 소비자들의 문의도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전문업체인 (주) 남양에서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업무에 임하고 있다.

Meta Block (New Product Updates)

Meta Block, a product specially designed to control body fat, was successfully launched in May. The full-scale launch of the product was wholeheartedly welcomed by agencies and health planners.

Namyang Company, the producer of Meta Block, is thrilled with the increase in inquiries from consumers.

2 신제품 - 포시즌 선크림

사계절, 365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라! 따가운 햇살 아래서의 자외선은 물론 생활자외선까지 방어하기 위한 남양알로에의 피부 대책으로 포시즌 선크림이 출시되었다.

포시즌 선크림의 특징은 자외선B는 물론 자외선 A까지 차단하는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인증받은 우수한 제품으로 남양알로에 가족과 고객

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가꾸기에 한 몫을 할 것이다.

Four Season Sun Cream (New Product Updates)



Protect your skin from ultraviolet rays 365 days a year, in all seasons!

Four Season Sun Cream has been launched as Namyang Aloe's measure to help people protect their skin from ultraviolet rays under the scorching sun and everyday.

Four Season Sun Cream is a quality product whose effectiveness in shielding the skin from both UVA and UVB rays is recognized by the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It will no doubt play an important role in keeping the skin of Namyang Aloe families and customers healthy and beautiful.

3 남양알로에 '대한민국 BSC 대상' 우수상 수상!



‘한국경제신문사’와 ‘웨슬리퀘스트 코리아’가 공동으로 제정한 “대한민국 BSC대상”은 전략경영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의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와 전략집중형 조직(Strategic Focused Organization)에 대한 국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공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전략경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의 전략실행 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학교수들이 심사에 참여하여 BSC를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조직들의 공동 원칙인 ‘SFO 5원칙’의 세부 27가지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남양알로에는 타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Namyang Aloe wins the Korea BSC Award!



The Korea BSC Award, presented jointly by the Korea Economic Daily and Wesley Quest Korea, was established to proactively identify and share Korean best practices in BSC (Balanced Scorecard) and SFO (Strategy Focused Organization) as methods for implementing strategic business management. The objective of the award is to enhance the level of strategy execution by Korean private and public companies through a correct understanding of strategic management and the expansion of its base. Professors acting as judges in the selection process applied the 27 detailed criteria of the “Five SFO Principles,” which are the common principles of organizations that have achieved significant successes through BSC. Namyang Aloe was chosen as a winner of the award in

competition against other companies.

4 미국 출장 건



4월 30일(토)부터 5월 8일(일)까지 남양알로에 총괄 상무인 정찬수 상무를 필두로 경영지원 이재은 본부장, 마케팅 조복희 본부장, 교육부조준용 차장이 오아시스사(미국) 방문 출장 일정이 있었다. 이번 출장은 오아시스와 남양알로에, 남양알로에와 오아시스의 사업전반에 대한 전략과 운영형태, 시스템 등을 공유하고 향후 에코넷 차원에서의 GLOBAL한 직접판매회사로서의 한 차원 높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준비 작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IT분야를 비롯해 영업조직과 제도, 물류, 콜센터, 마케팅등의 사업 전반은 물론 브랜드와 제품전략 등 세부 분야에까지 각 사의 운영 형태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의 방향과 계획을 협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출장 후 브랜드와 제품전략에 관해서는 중점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등 모든 분야에서 양사의 사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 Business Trip to the US

Headed by Namyang Aloe Managing Director Chansoo Jeong, a team consisting of Jaeun Lee (Head of Management Support Headquarters), Bokhee Cho (Head of Marketing Headquarters) and Junyong Cho (Deputy Senior Manager of Education) visited Oasis from April 30 through May 8.

The objectives of this visit were to share the

general business strategies, operational formats and systems of Oasis and Namyang Aloe and to prepare for the development of upgraded systems as global direct sales companies at the ECONET level in the future. The vis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operational configuration of each company regarding brand and product strategies as well as sales organizations and systems, logistics, call centers, marketing and IT, and to discuss future business directions and plans. This exchang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business development of both companies as it yielded focused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brand and product strategies following the visit.

(주)남양 / Namyang Company

5 4/8 태평양 OEM 제품(호미안화분추출물)의 첫 출시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실시



지난 4월 8일 첫 OEM 제품의 출시를 기념하며 남양 사원들의 단합 대회겸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를 가졌다. 또한 이날은 각 종목별로 푸집한 상금으로 더욱더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Ceremony and Athletic Event Celebrating the Launch of a Product Manufactured Under Contract (Homian Pollen Extract) for Amore Pacific Held on April 8



In celebration of the launch of the first product manufacturing contract, an athletic event was held on April 8 for the promotion of teamwork and friendship among Namyang staff members. The occasion was made even more exciting by the generous prizes awarded for various events.

6 OEM 및 신제품 출시로 인한 2교대 근무 실시 (3/14~ 현재까지)

- OEM 제품→ 태평양 :호미안 화분추출물 등
- 신제품→ (주)남양알로에 : 메타블럭 , 오아시스 : Regeni care, Xtra mini, Xtra conce 등

Two-Shift Operations due to Manufacturing Contract and New Product Launch (Mar. 14 until present)

- Products manufactured under contract → Homian pollen extracts by Amore Pacific
- New products → Meta Block by Namyang Aloe; Regeni Care, Xtra Mini and Xtra Conce by Oasis

7 직무정의 워크샵 실시건

지난 5월 6일 (주)남양은 대웅경영개발원(용인)에서 ERP 구축에 따른 변화된 직무 정의와 타부서의 직무를 이해함으로써 빠르게 변화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업무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Job Description Workshop

Namyang Company held a workshop at the Daewoong 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 (Yongin) on May 6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and to discuss business improvement opportunities by understanding job descriptions that underwent changes in the wake of the establishment of ERP as well a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other divisions.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8 (주)유니젠-제 6회 Unigen Global Summit 개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Unigen Korea와 Unigen USA 양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열리는 Unigen Global Summit을 천안 병천에 있는 Unigen Korea 생명과학연구소에서 개최하였다. 이번으로 6회째 개최된 Unigen Global Summit에는 Unigen Korea에서 조태형 사장과 우성식 박사(총괄상무겸 생명과학연구소장)을 비롯한 연구진이 참여하였으며, Unigen USA에서는 DerekHall사장과 Qi Jia 박사(연구소장)을 비롯한 연구진이 참석하였고 Oasis, 남양알로에 및 남양의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Global Summit을 통해 양사는 기반기술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개발중인 제품Pipeline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GMP도입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Unigen Korea - 6th Unigen Global Summit Held

Unigen Korea and Unigen USA, which have established a strategic alliance, held their semi-annual Unigen Global Summit at the Unigen Korea Life Science Institute located in Byeongcheon, Korea over three days, from May 11 through 13. The sixth Unigen Global Summit was attended by CEO Taehyeong Cho and Dr. Seongsik Woo (Managing Director and Director of the Life Science Institute) from Unigen Korea and CEO Derek Hall, Dr. Qi Jia (Director of the Research Center) and other associate researchers from Unigen USA.

Among other conference participants were officials from Oasis, Namyang Aloe and Namyang, making the occasion particularly significant. At the recent Global Summit, the two companies exchanged views on the development of base technologies, shared information on products in the pipeline and discussed the introduction of GMP.

9 (주)유니젠 - 천연물 영업 미국실무연수 시행



(주)유니젠은 본격적인 아시아천연물시장 진출을 위한 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25일부터 5월8일까지 2주간 미국 Unigen USA에서 영업실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영업실무연수에는 천연물 영업을 맡고 있는 마케팅팀의 최재영 차장이 참가하

여 미국 Unigen USA의 Regan Miles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천연물 영업에 대한 전략과 실무를 연수받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에는 지난 5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볼티모어에서 개최된 Supplside East 국제천연물전시회 참가하는 기회도 주어져 천연물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경험을 쌓는데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Unigen Korea - Training Session on the Sales of Natural Product Held in the US



In order to enhance its sales capabilities for full-scale entry into the Asian natural product market, Unigen Korea held a sales training session at Unigen USA for two weeks, from April 25 through May 8. The session was attended by Deputy Senior Manager Jae-young Choi, who is in charge of natural product sales within the Marketing Team. He had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strategies and practices involved in natural product sales from relevant officials of Unigen USA, including Vice President Regan Miles. The training program also included a chance to participate in SupplySide East, an international trade show and conference that was held in Baltimore from May 4 through 6. The event was a very useful opportunity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natural product market and accumulate working-level experience.

알로콥 / Aloecorp

10 알로콥의 조경사업



알로콥의 또 하나의 대사업인 조경사업의 시작을 이병훈사장님, 미국 유니베라 사장 Derek Hall, 알로콥사장 John Rhees 를 모시고 기념촬영과 함께 그 의미를 다져보았다.

조경사업의 위치가 지난 1988년 Hilltop Gardens 을 구입할 당시의 그 자리이기에, 미국에서 최초로 알로에를 상업적으로 재배 및 제품을 생산한 Hilltop Gardens의 브랜드를 되살리는데 한몫을 할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총면적 12 acres (14,400 평)에 다다르는 대 사업이기에 계획된 기간에 완성하기 위해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Aloecorp' s landscape project



In the taking of a commemorative photograph, the significance of the launch of a landscape project, another major initiative of Aloecorp, was reasserted in the presence of CEO Bill Lee, Univera CEO Derek Hall and

Aloecorp President John Rhees.

The landscape project site is Hilltop Gardens, which was purchased in 1988. The project will no doubt contribute to reviving Hilltop Gardens, the first brand in the United States to succeed in commercializing the cultivation and production of aloe.

All-out efforts are being made to complete the mega-project, which spans over 12 acres (14,400 pyong) in total, within the planned timeframe.

미국유니젠 / Unigen USA

11 유니젠 USA 항산화제 특허 획득

천연물 연구개발업체로 유효한 식물 추출 성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천연물 및 의약품 업체에 공급하는 유니젠 USA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Aloewhite® 와 Pervarin® 상용 원료 성분 제품에 함유된 유니젠 미국의 독점 보유 항산화제 성분의 물질 배합 및 용법에 대해 특허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유니젠 USA의 연구담당부사장이자 이번 특허의 공동 창안자인 치 지아 박사(Dr. Qi Jia)는 “Aloewhite® 와 Pervarin® 는 이번 특허에서 인증한 알로에 크로몬계 분자에서 추출한 두가지 주요 상용제품”이라고 말하며, “Aloewhite® 는 알로에신을 90% 이상 함유하고 있으며, 노화 억제 및 자외선 차단 화장품 개발에 사용될 수 있고, Pervarin®는 알로에리신 A가 상당량 함유되어 있으며, 경구 또는 국소 투여를 통해 지질 과산화에 의한 손상에 대응하여 인체의 내인성 항산화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실용특허는 유니젠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사업 파트너의 제품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로에 베라와 기타 식물로부터 추출한 특정 알로에 크로몬의 확인과 정제를 통해 유니젠의 과학자들은 크로몬이 활성산소의 발생과 산소 관련 활성산소를

포함하는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생산을 동시에 억제함으로써 활성산소의 산화로 인한 손상을 억제한다는 효과를 밝혔다.

ROS는 여러가지 건강한 인체 기능을 위한 정상적인 생리학적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즉, 면역 및 감염에 대한 대응과 새로운 세포 생성을 위해 필요한 세포 사멸의 형태인 세포자살적 세포사멸의 유도뿐만 아니라 손상된 DNA를 인체로부터 제거하기도 한다. 그러나, ROS의 과다 생성은 노화 과정을 유도하고, 피부 주름뿐만 아니라 아테롬성 동맥경화, 관상동맥 심장 질환, 치매, 인지 기능 이상, 당뇨, 암, 흑색종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ROS가 식품 첨가제, 자외선, 담배 연기 및 기타 오염물의 노출 결과 발생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유니젠의 특허는 알로에 크로몬계열인 알로에신의 활성산소 흡수력 (ORAC)이 일반 녹차 및 포도씨 추출물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밝혔다. 역시 크로몬 계열인 알로에리신A는 일반 녹차 및 포도씨 추출물보다 신속히 작용하는 항산화제로서 4배나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 또한, 알로에리신 A는 지질 과산화 억제 효과를 기준으로 할 때, a?토코페롤 또는 비타민 C 보다 항산화 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알로에리신 A는 지질 과산화를 억제하고 농도가 낮아도 비타민 E 보다 3배나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Unigen Pharmaceuticals Issued Patent for Potent Antioxidants

Lacey, WA – April 26, 2005 – Unigen Pharmaceuticals, Inc., a lea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facility and supplier of proprietary, biologically active plant-derived ingredients to the natural products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has announced that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today issued a composition of matter and usage patent for the company's proprietary antioxidant ingredients contained in its

Aloewhite® and Pervarin® commercial raw material ingredient products.

“Aloewhite® and Pervarin® are two important commercial products derived from the aloe chromone molecules cited in this patent,” said Dr. Qi Jia, Unigen’s Chief Scientific Officer and co-inventor of the patent. “Aloewhite® contains more than 90% aloesin, and can be formulated into anti-aging and sun care cosmetic products. Pervarin® contains a significant amount of aloeresin A and, through oral or topical administration, can support the body’s endogenous antioxidation functions against damage caused by lipid peroxidation.” He added, “This utility patent will offer protection to Unigen’s intellectual property and will enhance the product value for our business partners.”

Through the identification and purification of specific aloe chromones derived from Aloe vera and other plant species, Unigen scientists have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these chromones in inhibiting free radical and oxidative damage through the simultaneous suppression of free radical generation and pro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which includes oxygen-related free radicals.

ROS involves a normal physiological process responsible for a variety of healthy bodily functions. This includes immune and inflammation response, and the intercellular induction of apoptosis, a form of cell death necessary to allow for new cell production, as well the removal from the body of cells with damaged DNA. However, an overproduction of ROS is a major inducer of the aging process that may lead to wrinkled skin, as well as

other health concerns such as atherosclerosis, coronary heart disease, dementia, cognitive dysfunction, diabetes mellitus, cancer and melanoma, particularly if ROS is generated as a by-product of food additives, ultraviolet radiation, and exposure to tobacco smoke and other pollutants.

Unigen’s patent disclosed that aloesin, an aloe chromone, had a much higher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ORAC) than standardized green tea and grape seed extracts. Another chromone, aloeresin A, was four times more potent as a fast-acting antioxidant than the standardized green tea and grape seed extracts. Aloeresin A was also shown to be a stronger antioxidant than either a-tocopherol or vitamin C as measured by lipid peroxidation inhibition capacity. Aloeresin A inhibited lipid peroxidation and was shown to be three times more potent than Vitamin E, even at a low concentration.

하이난 알로콧 / Hainan Aloecorp

12 남양알로에 우수간부 중국 현지 법인 방문



지난 5월8일부터 5월11일까지 남양알로에 우수간부 및 본사직원 27명이 중국 현지법인을 방문하였다. 첫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알로에 농장 견학 및 알로

에 종식 등 농장 체험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목표와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 지사는 영업국 승격, 인당 100명 증원 등의 목표를 세우고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High-performing Namyang Aloe managers visit the Chinese subsidiary



A 27-member team made up of Namyang Aloe’s high-performing leaders and head office staff visited the Chinese subsidiary from May 8 through 11. Kicking off the first day with a seminar, they toured the aloe plantation and tried their hand at planting aloe. Participants also took part in a session in which they updated their personal goals and reaffirmed their resolve to achieve them, while branch offices pledged to strive hard and set goals for being promoted to sales bureaus and for recruiting 100 additional agents per person.

13 중국 현지법인 대표 한상준 사장 중국 해남성 TV NEWS인터뷰

중국 현지법인 대표 한상준 사장은 지난 4월 24일 중국 해남성 TV와 하이난 알로콧의 투자 배경 및 투자 내용, 향후 투자 계획 등에 대해 NEWS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장면 및 현지법인 알로에 농장 모습 등이 황금 시간대인 저녁 7시30분 NEWS 시간에 약 5분여에 걸쳐 방영되었다. 이번 인터뷰는 해남성 만녕시

전체 투자기업 21개 업체 중 하이난 알로콧이 선정되어 이루어졌으며 하이난 알로콧의 높은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Sangjun Han, President of the Chinese Subsidiary, Interviewed by Hainan Province TV News



On April 24, Mr. Sang-jun Han, President of Hainan Aloecorp, was interviewed by Hainan Province TV about Hainan Aloecorp’s investment background, details and future plans.

The interview and images of the aloe plantation were part of a five-minute broadcast for on the 7:30 evening news – a prime timeslot. Hainan Aloecorp was selected for the interview from among 21 invested companies across Wanning City, Hainan Province, and it represented a chance to reinforce the standing of Hainan Aloecorp.

14 한국 3사 토요 집중근무일 변경

초, 중, 고등학교의 매월 4주차 토요일 휴교에 따른 근무일 변경으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시행하던 토요 집중 근무일을 매월 셋째주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Korean Subsidiaries Change Their Intensive Saturday Workday

As al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 have no classes on the fourth Saturday

of every month, the Korean subsidiaries have changed their intensive Saturday workday from the last week of each month to the third week of each month.

유니젠 러시아/Unigen Russia

15 이병훈 대표이사外 Unigen Biomass Complex 농장 방문



지난 5월12~14일 러시아 농장 Unigen Biomass Complex에 이병훈 대표이사와 윤경수 상무 그리고 러시아 농장에 파종한 황금을 구매 할 미국의 데렉 홀 사장의 방문이 있었다. 농장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Unigen Biomass Complex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를 다시 한번 확인 하였고 데렉홀 사장은 귀국 후 러시아팀을 위하여 모기잡는 기계를 선물로 보낸다는 이메일이 있었다 직원들 모두 기뻐하고 감사드리며, 또 한번 ECONET 가족의 사랑을 느낄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A Team Led by CEO Bill Lee Visits Unigen Biomass Complex



From May 12 through 14, CEO Bill Lee, COO K.S. Yoon and Univera CEO Derek Hall, a potential buyer of skullcap sown at the Russian plantation, visited the Unigen Biomass Complex.

The visitors reasserted their expectations and the possibilities of the Unigen Biomass Complex and delivered words of encouragement to the plantation staff. After returning to his office, Mr. Hall sent us an e-mail saying he would send the Russian Team a present: a device for catching mosquitoes. The entire staff was thrilled at the news and is appreciative of his thoughtful consideration. It was a momentous occasion on which the warmth of the ECONET family was once again evident.



신입사원 / New Hire



▲ 김사무엘(남양)/
에코넷기업본부 인사팀 주임
Samuel Kim (Namyang)/
ECONET Corporate &
Shared Service Center



▲ 윤상기(남양)/
생산기술팀 사원
Sangki Yoon (Namyang)/
Production Technology Team



▲ 김재승(남양)/
영업기술팀 과장
Jaeseung Kim (Namyang)/
Manager, Sales Technology Team



▲ 조나단 얼리 와인 (유니젠)/
유니젠 프로세스 개발 화학자
Jonathan Earlywine (Unigen)/
Unigen Process Development Chemist



▲ 제이앤 제이콧슨 (알로콥)/
행정 관리 담당
J-Anne Jacobsen (Aloecorp)/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 버지니아 스위트펌킨 (알로콥)/
회계담당
Virginia Sweetpumpkin(Aloecorp)/
Staff Accountant



▲ 조엘 패트릭 (오아시스)/
마케팅 서비스 매니저
Joel Patrick (Oasis)/
Manager of Marketing Services



▲ 줄리 달비 (오아시스)/
프로젝트 세일즈 매니저
Julie Darby (Oasis)/
Project Sales Manager



▲ 미셸 해밀턴 (오아시스)/
오아시스 콜 센터
Michelle Hamilton (Oasis)/
Oasis Call Center



▲ 타냐 바워스 (오아시스)/
오아시스 콜 센터
Tanya Bowers (Oasis)/
Oasis Call Center



▲ 실비아 브리식 (오아시스)/
오아시스 콜 센터
Sylvia Brcic (Oasis)/
Oasis Call center



▲ 타라 모세스 (오아시스)/
오아시스 콜 센터
Tara Moses (Oasis)/
Oasis Call center

New Hire

승진자 / Promotions

유니베라 / Univera



▶ 탐 홀리한 / Tom Hoolihan

• VP & General Counsel ⇨ 법무, 전략 및 행정 담당 EVP 겸 General Counsel

• VP & General Counsel ⇨ EVP & General Counsel of Department of Law, Strategy and Administration

▶ 김미선 (Misun Kim)

• 유니베라 회계 담당 ⇨ 알로콥의 회계 매니저
• Staff Accountant (Univera) ⇨ Aloecorp's Accounting Man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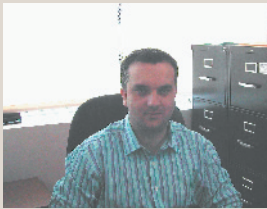
오아시스 / Oasis

▶ 키타 테렐 / Quita Terrell



- 구매 담당 ⇨ 오아시스의 유통 코디네이터
- Purchasing Clerk ⇨ Oasis's Distribution Coordinator

▶ Yuri Vorobets / 유리 보로베츠



- 커미션 담당 ⇨ 오아시스의 커미션 매니저
- Commissions Accountant ⇨ Oasis's Commission's Manager
- ▶ 사라 쇼 / Sarah Shaw
- 회계 담당 ⇨ 오아시스의 회계 주임
- Staff Accountant ⇨ Oasis's Accounting Supervisor

경조사 소식 /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주)남양 / Namyang Company

-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05년 3월 23일 ERP PI팀의 김정임 사원 조부 별세
 - 2005년 3월 24일 경영지원팀 최정환 대리 병부사망
 - 2005년 4월 4일 생산기술팀 김영덕 부장 모친 별세
-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 The grandfather of Jeongim Kim, an ERP PI team member, passed away on March 23, 2005.
 - The father-in-law of Jeongwhan Choi, an assistant manager of the Management Support Team, passed away on March 24, 2005.
 - The mother of Youngduk Kim, the senior manager of the Production Technology Team, passed away on April 4, 2005.
- ◆ 결혼을 축하합니다.
 - 일시 : 2005년 4월 10일 / 연구실(화장품) 유홍석 주임연구원
 - 장소 : 청주(췌이스 4층) 웨딩홀

- ◆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 Hongseok Yoo, a laboratory associate researcher (cosmetics)
 - Date: April 10, 2005
 - Place: Cheongju Wedding Hall (4th floor, Choice)

(주)남양알로에 / Namyang Aloe

-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4/28 고객지원팀의 신은미 대리 모친상
-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 The mother of Eunmi Shin, an assistant manager of the Customer Support Team, passed away on April 28, 2005.
- ◆ 결혼을 축하합니다.
 - 일시 : 2005년 5월 28일 14시 / 생명과학연구소 오선택 이사 (장남 오기환군)
- 송은주 주임 (신랑 한범준)
- 일시 : 2005년 6월 5일 11시 /
-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웨딩의 전당 모나크

- ◆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 The eldest son (Kiwhan) of Director Seontaek Oh, Life Science Research Institute
 - Date: May 28, 2005 (2:00 PM)

Supervisor Eunju Song (groom Beomjun Han)



- Date : June 5, 2005, 11 o'clock
- Place : KFSB Wedding Hall Monach, Seoul

미국 유니젠 / Unigen USA

-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5/5 Regan Miles(리간 마일스) 부사장 모친상
 - 4/17 Carolyn Doolan (캐롤린 둘란) 부친상
-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 The mother of Regan Miles, the executive vice president of Unigen-USA, passed away on May 5, 2005.

- The father of Carolyn Doolan, Staff Accountant of Unigen, passed away on April 17, 2005.

알로콧 / Aloecorp

-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5/19 J-Anne Jacobsen (J-앤 제콧슨) 부친상

-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 The father of J-Anne Jacobsen,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of Aloecorp, passed away on May 19, 2005.

유니베라 / Univera

-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5/8 Tom Paquette (톰 파켓) 부친상
-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 The father of Tom Paquette, Manager of IS of Univera, passed away on May 8, 2005.

생일자 소식 06~07

Birthday in June & July

Happy Birthday

남양 / Namyang



◆ (6/2) 정봉수
Bongsoo Jung



◆ (6/3) 노금례
Keumrye Noh



◆ (6/12) 천창식
Changsik Chun



◆ (6/14) 주혜련
Hyeryeon Joo



◆ (6/23) 박정선
Jungsun Park



◆ (6/28) 이병훈
Bill Lee



◆ (7/1) 조정임
Jungim Cho



◆ (7/3) 이추월
Choowol Lee



◆ (7/23) 김보희
Bohee Kim



◆ (7/25) 양순례
Sunrye Yang



◆ (7/28) 전영숙
Youngsuk Jun



◆ (7/23)
헤르난데즈 힐다
Hernandez Morones
Nora Hilda



◆ (7/28)
호세 퀴노네스
Jose Quino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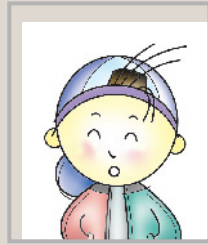
◆ (7/30)
알바라도 베로니카
Alvarado Haz Veron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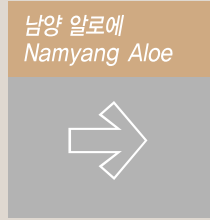
◆ (6/18)
제이티 화이트워스
JT Whitworth



◆ (7/1)
스티븐 처니스케
Stephen Cherniske



◆ (7/31) 김진영
Jinyoung Kim



◆ (6/11) 김효재
Hyojae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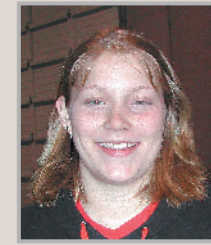
◆ (6/12) 김현욱
Hyunuk Kim



◆ (6/17) 백재열
Jaeyeol Baek



◆ (7/1) 박정아
Jungah Park



◆ (7/8)
브랜드 시몬즈
Brandy Simmonds



◆ (7/26)
스탠 바이스
Stan Weiss



◆ (7/31)
스코티 쿠푸스
Scotty Kufus



◆ (6/4)
크리스탈 스프링거
Crystal Springer



◆ (6/10) 성한용
H.Y. Sung



◆ (7/4) 이현주
Hyunjoon Lee



◆ (7/7) 이원석
Wonseok Lee



◆ (7/17) 이 룰
Ryl Lee



◆ (7/18) 김소연
Soyeon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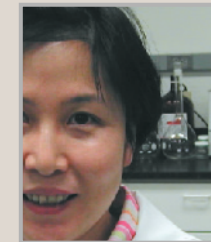
◆ (6/22) 도선길
Sunkil Doh



◆ (6/19) 리간 마일스
Regan Miles



◆ (6/29) 웬웬 마
Wenwen Ma



◆ (7/8) 정미정
Mijeong Jeong



◆ (7/17) 줄리아 후
Julia Foo



◆ (7/29) 민병국
Byeongguk Min



◆ (6/1)
차베즈 데라 루즈
Chavez Reyes Ma,
dela Luz



◆ (6/2)
무니즈 유헤니오
Muniz Chiguito
Eugenio



◆ (6/6)
잔 리스
John Rhees



◆ (6/13)
몬타노 안토니아
Montano Ramirez
Antonia



◆ (6/21) 수잔
Susan



◆ (7/11) 코코
Coco



◆ (7/17) 게리
Gary



◆ (6/19) 구원모
Wonmo Koo



◆ (6/19)
프로토포포보 올가
아나토리에브나
Protopopovo
Olga Anatolievna



◆ (6/16)
환 살다나
Juan Saldana



◆ (6/16)
제이앤 제이콧슨
J-Anne Jacobsen



◆ (6/22)
에드워드 실바
Edward Silva



◆ (6/28)
마크 사이몬
Mark Simon



◆ (7/10)
코르도바 루피나
Cordova Duran
Rufina



◆ (7/20)
에스메랄다 이니게즈
Esmeralda Yniguez

Happy Birthday

찰칵! 추억한장

에코네시안들의 행복과 깊은 뜻이 담긴 소중한 추억의 사진들을 여기 공개합니다. (8월호에도 많은 응모 바랍니다.)



1등 The first - prize winner

에코넷을 세계로 심어요 ~ 남양알로에 고객지원팀 박정아 기자

Let's plant ECONET all over the world! Jeongah Park, a Customer Support Team manager, Namyang Aloe

Click! Old Memory in a Snapsh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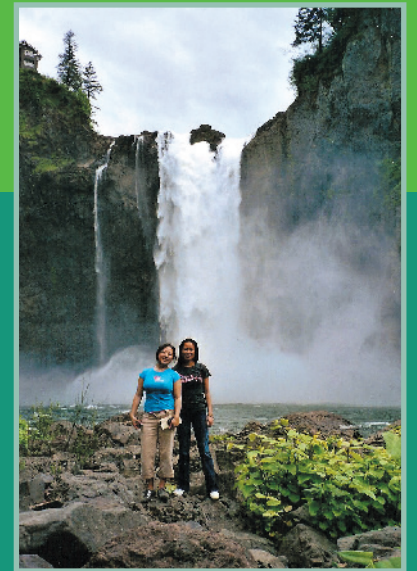
Here are some treasured pictures of happy memories to share with other ECONETIANs.
(We're looking forward to seeing more pictures in the August issue.)



2등 The second-prize winner

눈을 감아도 멋진 사나이~ 남양 생산기술팀 김홍만 사우
yes closed...but still a good-looking guy!

Hongman Kim, Production Technology Team, Namyang



3등 The third-prize winner

스노콴미 폭포수 아래 아름다운 여인들
Beautiful ladies in front of Snoqualmie Falls

Sarann Pel, Sales Coordinator, Oasis



◀ 앞줄 가운데 인물 -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
맨뒷줄 왼쪽에서 4번째 당사직원 씨
Front row, center : Chinese President Hu Jintao; back row,
fourth from the left : Pi, a company employee



▶ 이 나무 만큼 클거야^^
I'm going to be this tall.



◀ 응원단장님 베리굿!
남양 생산기술팀 전영숙 사우
The leader of the cheering team...very good!
Young-sook Cheon, Production Technology Team, Namyang



▶ 체육대회날 - 아자아자 화이팅~
남양 경영지원팀 최순미 대리
Sports Fete Day -YES! Let's go for it!
Soonmi Choi, a Management Support Team
assistant manager, Namyang



사진 공모 이벤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ECONET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상상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사랑하는 기업을 전 세계가 직접 경험하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농장에서, 들에서, 숲에서 본사 브랜드 ECONET과 함께 하는 모습을 함께 해 주세요.

ECONET이 위치한 모든 대륙에서 촬영한 사진을 통해, 'ECONETIAN', 다시 말해 ECONET 일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경험을 전해 주세요.

멋진 세계 ECONET 사진 공모전의 서막을 열겠습니다. 우선 공모전 응모에 대해 말씀 드리면, 반드시 'ECONET'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을 몸에 걸치고 있어야 합니다. 사진에 'ECONET'이라는 문자가 보인다면 셔츠, 모자, 바이저 등 여러분이 상상하는 어떤 것을 착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2005년 8월, 다음 각 부문 공모전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 각 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아름다운 풍경 사진(Most Beautiful Scenery)
 - 농장, 들, 강, 산, 바다, 나무 등 어느 곳에서 촬영해도 됩니다.
2. 유명인사와 함께 한 최고의 사진(Best Celebrity Buddy)
 - TV, 영화, 스포츠 스타 또는 유명 정치인이나 문인과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여러분이 유명인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나 함께 버스를 타고 있는 모습, 또는 함께 재미있는 일을 하는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3. 가장 흥미로운 유명 건축물 사진(Most Interesting Architectural Landmark Photo)
 - 자유의 여신상, 중국 만리장성,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에펠탑 등 휴가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을 방문하시면, 그 앞에서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4. 가장 재미있는 사진
 - 다양한 ECONET 가족이 큰 소리로 웃거나 미소 짓는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인물의 얼굴을 촬영해야 합니다.

▶ 상품안내

- 1 각 부문 우승자
 - 원하는 곳 어디서든 식사할 수 있는 300달러짜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 2 전 부문을 포괄하는 최우승자
 - 하와이, 멕시코, 시애틀, LA행 왕복 항공권 2매와 ECONET WAY 8월호 표지에 소개되는 영광을 드립니다
- 3 각 사의 법인카드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상품권

▶ 이벤트 취지

- 이번 이벤트는 Oasis Scotty Kufus 이사님 제안으로 8월에 있는 Oasis Sales Associate들의 큰 행사에 맞춰 이 ECONET Picture Contest의 사진이 들어간 ECONET WAY를 ECONET Brand 홍보의 목적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만의 사진을 촬영해 보세요. 개인이 출품할 수 있는 응모작 수는 각 부문별 세 개입니다.

출품 마감일은 2005년 6월 15일입니다. 사진은 ECONET@UNIVERA.COM 보내주세요.

또는 <http://webhard.namyangaloe.com> (ID: econetway PW: econetway)에 올려주세요

각 부문별 상위 10개 사진을 게시하면, 전 세계 직원이 게시된 사진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자연과 인류의 최고(The Best of Nature and Mankind)"를 함께 이끌어 내는 여러분 노력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World Wide ECONET Photo Contest!

Imagine....ECONET known around the world...

No reason to imagine it any longer, it is time that the world experience the company we all know and love. We want to see our brand name ECONET from the Farms, Fields and Forests of the world with your family.

We want you to share the experience of being an ECONETIEN with pictures from our employees on every continent that Econet operates. Its time for a wonderful World Wide ECONET Photo Contest!

▶ In August of 2005 we will publish the world wide winner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 Here is how it works You must be wearing something that Says ECONET on it. A shirt, A hat, A visor or whatever you might dream up to wear in a photo, as long as it says ECONET in the photo.
- Most Beautiful Scenery ... Farms, Fields, Rivers, Mountains, Oceans, Trees etc..
- Best Celebrity Buddy Photo ... You must take a picture with a Star from TV, Movies, Sports, Politics or Literature. They must be with you somehow, holding your hand, sitting in a bus...something fun.
- Most Interesting Architectural Landmark Photo ... Take a picture in front of a world Landmark while you are on vacation. Statue of Liberty, Great Wall of China, Sydney Opera House, Eiffel Tower, etc..
- Funniest Faces ... A picture with a variety of ECONETIANS laughing or smiling.

▶ Winners in Each Category Get a \$300 Gift Certificate for Dinner To anywhere they want to eat.

▶ TOP AWARD for the BEST all around Winner....

Two Round Trip Airline Tickets to Hawaii, Mexico, Seattle, Los Angeles and the COVER of the August ECONET WAYMAGAZINE...

▶ Point gift certificates provided by corporate cards of each company

▶ Purpose of the Event

At the suggestion of Scotty Kufus, a director at Oasis, the ECONET WAY with photographs from the ECONET Photo Contest will be used to promote the ECONET brand at a large event planned for Oasis Sales Associates in August.

Start snapping your photos soon...

*Each person can submit Three photos per category. All Photos must be submitted by **June 15th, 2005.***

Send all Photos to SeanL@oasisnetwork.com , or <http://webhard.namyangaloe.com> (ID: econetway PW: econetway)

The Top 10 photos in each category will be posted and voted on by Employees around the world.

Good Luck Bringing together “ The Best of Nature and Mankind”

6월호 퀴즈 & 4월호 당첨자 발표

퀴즈 정답 – 유니벅스, 유니베스틴케이, 유니벅스, 유니베스틴케이,

▶ 4월호 퀴즈당첨자

- 알로엔느 3종 받으실분
(주)유니젠 / 성희선, (주)남양 / 박창규, 오성균, 김태욱
- 알로에버라인 컨투어세럼 받으실분
오아시스 콜 센터 – Heather McMullen (헤더 맥물렌)
하이난 알로콧 – 코코

▶ 응모하실곳 : kaoh@univera.com 또는 엽서

ECONET WAY 응모엽서에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차츰 차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호 ECONET WAY 퀴즈

- 비만의 원인이 단지 몸무게가 아니라 체지방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무조건 몸무게를 빼주는데에 급급한 제품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품이 바로 ()이다. 즉, ()은 체지방의 조절로 비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해주는 제품이다. ()의 핵심 기능성분은 바로 식이섬유이다.

※ 6월호 퀴즈 당첨자에게는 퀴즈답에 해당하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Winners of the April Quiz and Photo Contest

Answers - UniBEX, Univestin K, UniBEX, Univestin K

▶ Winners of the February Quiz

- Winners of Aloenne gift sets
Heesun Sung / Unigen Korea
Changkyu Bang, Sungkyun Oh, Taeok Kim / Namyang Company
- Winners of ALOEVER line contour serums
Heather McMullen / Oasis Call Center
Coco / Hainan Aloecorp

▶ Please send answers via e-mail (SeanL@econetwest.com or kaoh@univera.com) or by postcard

We will do our best to make use your valuable suggestions sent in using the ECONET WAY postcard.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Quiz for the ECONET WAY June issue

Given that the cause of obesity is not weight alone, but body fat, ()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other products that only focus solely on reducing weight. () addresses the fundamental cause of obesity by controlling body fat. The key active ingredient in () is dietary fiber.

* The winners of the June quiz will receive the answered product.

▶ 4월호 사진컨테스트 당첨자

- 1등 (문화상품권) – (주)남양알로에 / 박정아 과장,
- 2등 (문화상품권) – (주)남양 / 김홍만,
- 3등 (알로에버 라인 컨투어세럼) –
오아시스 / Sarann Pel

▶ Winners of the April photo contest

- Winners of cultural gift certificates
The first prize winner : Jeongag Park / Namyang Aloe
The second prize winner :
Hongman Kim / Namyang Company
- Winners of ALOEVER line contour serums
The third prize winner : Sarann Pel / Oasis



에코넷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Postcard

ECONET WAY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고객, 직원, 가족)

성명

소속

주소

전화

□□□-□□□

받는사람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동 302-4 에코넷센터 3층
(주)남양 에코넷기업본부 “에코넷웨이” 편집담당자 앞

1 3 3 - 1 2 0

ECONET WAY

Postcard

sender (customer, employee, family)

Name

Division

Address

Phone number

□□□-□□□

Please send to

The Editor of ECONET WAY,
ECONET Corporate & Shared Service Center,
Namyang Company
3th floor,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Korea

1 3 3 - 1 2 0



We strongly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by all members of the ECONET family.

• 함께 만드는 ECONET WAY •

에코네시안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감명깊게 읽은 책, 기억에 남는 공연, 좋은 추억이 된 여행, 자신만의 에세이 등 자유롭게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원고를 보내주세요.

- 1. 이번호에서 가장 흥미롭고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2. '에코넷웨이'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 3. '에코넷웨이'에 전하고 싶은 의견이나 제안을 적어 주십시오.
- 4. 참여하고 싶은 코너나 추천하고 싶은 사우를 적어주세요.

● 4월호 정답

• Let’s join the ECONET WAY •

ECONET WAY is awaiting your participation. Please contribute articles on any topic, such as your favorite book, an unforgettable performance, a memorable trip or a personal essay. Your contribution would be deeply appreciated.

- 1. Which article did you find most interesting or useful in this month’s issue?
- 2. What would you like to read in future issues of ECONET WAY?
- 3. Please submit any comments or suggestions you have for ECONET WAY.
- 4. Kindly suggest a section to which you’d like to contribute or a colleague you’d like to recommend.

● Answer

ECONET WAY

에코넷 가족 / ECONET Family



(주)남양 / Namyang Company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 : 365-850
370-92 Yongjeong-Ri, chopyeong-Myon,
Chinchon-Kun, Chungbuk, 365-850, Korea
Tel : (043)532-5144, Fax : (043)532-5328
www.namyangglobal.com

(주)남양알로에 / Namyang Aloe Inc.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 ga,
Sungdong- 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02)467-9988
www.namyangaloe.com

(주)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00-1번지
☎ : 330-863
#200-1, Songjung-Ri, Byeongcheon-Myeon,
Cheonan-Si, Chungnam 330-863, Korea
Tel : (041)529-1510, Fax : (041)529-1599
www.unigen.net

유니베라 / Univera, Inc.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300, Fax : (360)413-9185

오아시스 / Oasis Lifescience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500, Fax : (360)413-9150
www.oasislifesciences.com

미국 유니젠 / Unigen Phmaceuticl inc.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200, Fax : (360)413-9135
www.unigenpharma.com

알로콧(생산) / Aloecorp Inc (Production)

61/2 Miles North of La Villa On FM 491
Lyford, Texas 78569 U.S.A
Tel : (956) 262-2176 Fax : 956-262-8113
www.aloecorp.com

알로콧(영업) / Aloecorp Inc (Sale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400, Fax : (360)413-5036
www.aloecorp.com

중국 하이난 알로콧 / Hainan Aloecorp

Room #1108, Haikou International Commercial Centre, No.38,
Datong Road, Haikou, Hainan, China - Zip Code : 570102
Tel : (898)-6674-5400, Fax : (898)6674-3400

유니젠 러시아 / Unigen-Russia

3rd Floor, Aleutuskaya 14str.
Bladivostok, Primory, Russia
Tel : 7-4232-30-10-66, Fax : 7-4232-30-10-64

건강기능식품

Meta Block

메타블럭

식이섬유보충용제품

☑ 메타블럭과 함께하는 즐거운 체지방 관리

불규칙한 식생활과 운동 부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당신!
무리한 체중 조절보다 체지방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메타블럭과 함께 즐거운 체지방 관리를 시작하세요.

☑ 가르시니아캄보지아와 식이섬유의 체지방 조절효과

메타블럭은 체지방의 분해를 돕고 지방합성을 저해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껍질추출물 및 지방 흡수를 저해하는
수용성·불용성 식이섬유를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 부담없는 맛과 편리한 섭취

크렌베리와 리스베리가 함유된 산뜻한 맛의 씹어먹는 정제
타입으로 일일 분량을 개별 포장해 섭취 및 휴대가 간편합니다.



NamyangAloe

행복을 가꾸는 알로에 과학, 남양알로에